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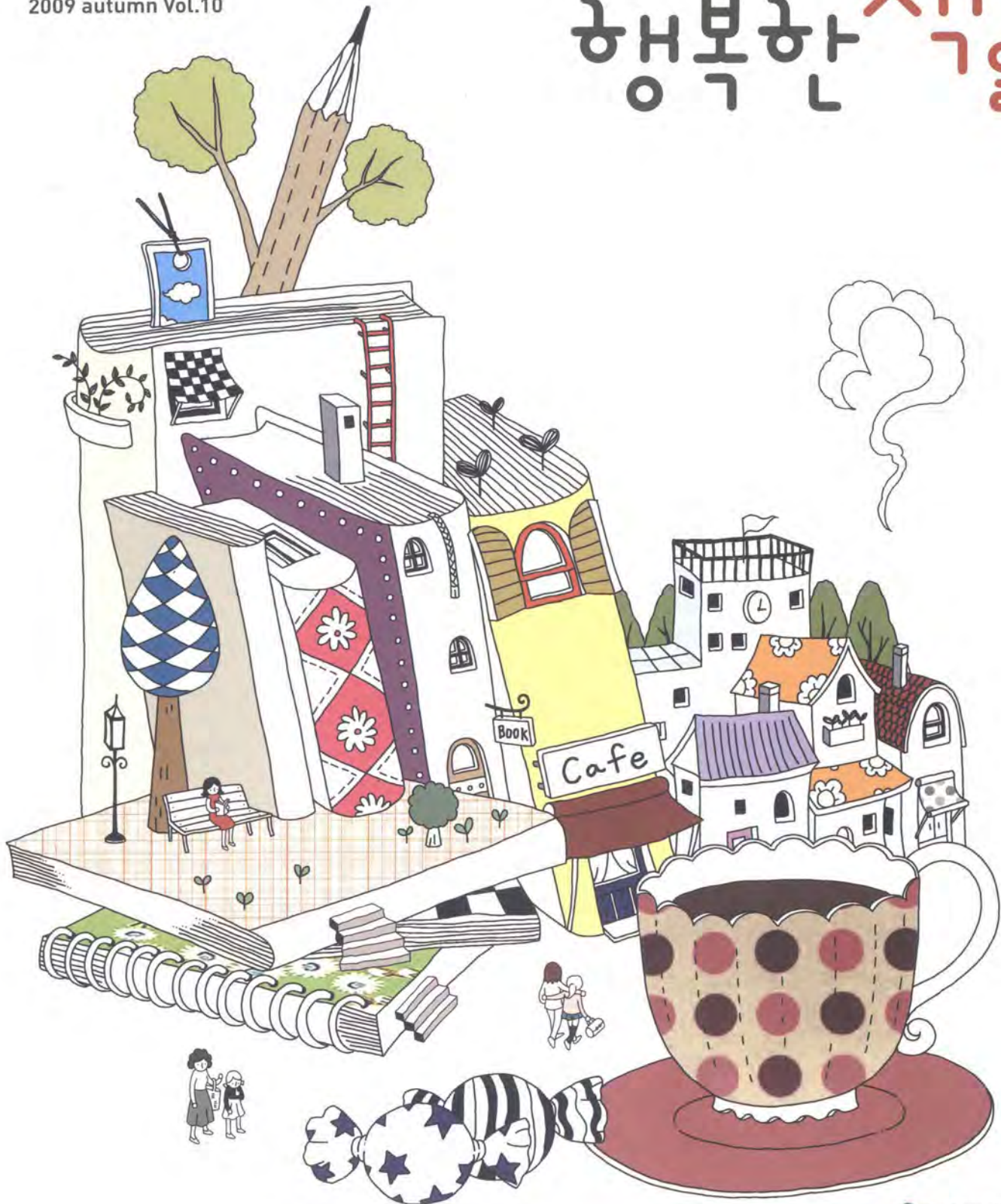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2009 autumn Vol.10

사서와 함께

행복한 **가** 읽기

vol
10



Contents

2 0 0 9 • a u t u m n v o l . 1 0



02 특별기고 | 내 인생의 책들

04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문학 · 도가니 · 죽음의 중지 · 아버지의 사과편지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오래된 마을 · 부코스 키가 간다 · 워저드 베이커리 · 마음 가는 대로 ·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

교육 · 영재 공화국 · 핀란드 공부법 · 소리치지 않고 아담치지 않아도 아이가 달라지는 잔소리 기술 ·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인문과학 · 고민하는 힘 ·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 다중지능 ·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 왜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 다를까 ·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철학 콘서트 2 ·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

사회과학 ·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 ·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 실천편 · 불평 없이 살아보기 · 아웃리더 · 가격차별의 경제학 ·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 후불제 민주주의

과학 · 우주 엘리베이터 · 자연, 뒤집어보는 재미 · 자연재해 · 브레인 콘서트 ·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예술 · 취미 ·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 · 날아가는 비둘기 동구멍을 그리라급소? · 행복의 지도 · 그림 이 그녀에게 ·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 · 좋은 여행

어린이 · 이빨자국 · 빨강 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 · 통조림에서 나온 소인들 · 나불나불 말주머니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 도시락 안 싸간 날 · 한걸음만 다가서 봐 · 누가 내 도시락을 훔쳐갔을까? 뭐든지 파는 아저씨 · 마지막 수수께끼 · 책꽃이에 가지런히 책 · 지렁이다 · 엄마가 된다는 것 · 용구 삼촌 · 마음을 훔친 도둑 · 하늘의 법칙에 도전한 복학 사상이 흥대응

34 독서문화운동! 그 네 번째 이야기 | 대한민국 잘나가는 기업의 경영전략, 독서경영

36 현장 엿보기 | 도서관 '방과 후 학교' 수업 이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38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여행 | 2009년 수남초등학교 도서관 한여름 밤 가족 독서캠프 이야기 '전래동화야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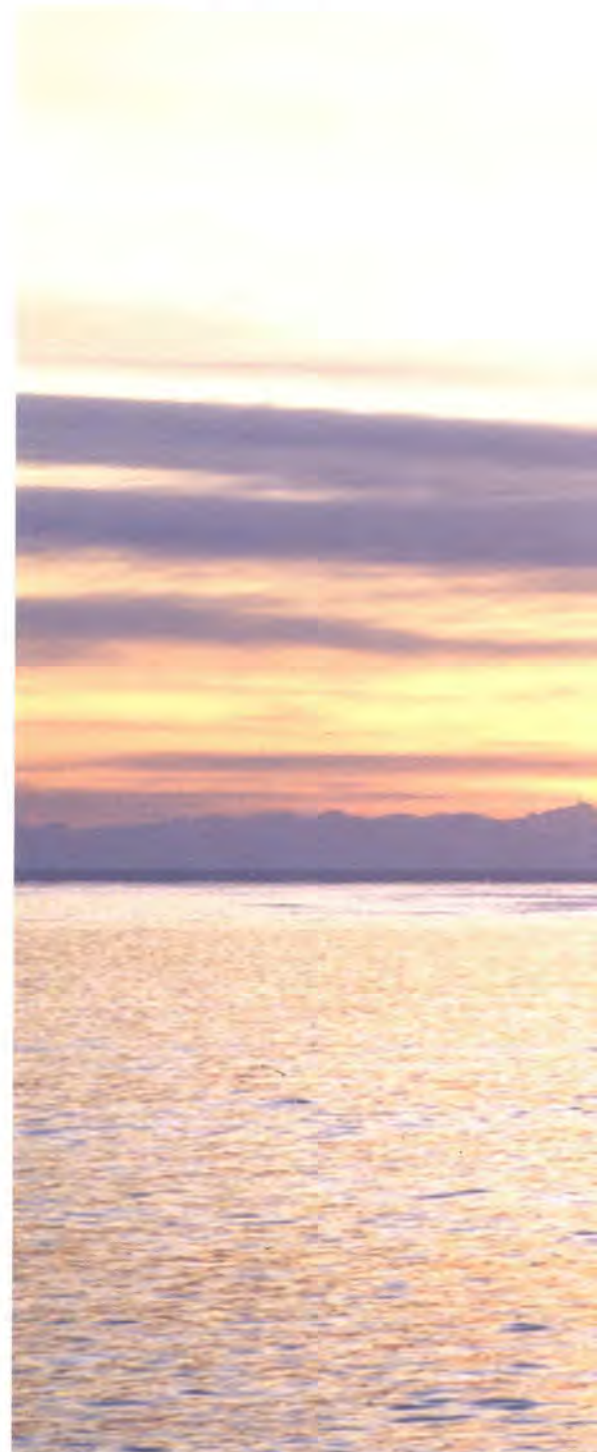
42 책 VS 영화 | 마이 시스터즈 키퍼

44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FIVE

46 도서관계 키워드 | 국경을 뛰어넘는 도서관(Libraries without borders)

49 쉼터

50 팡! 팡! 쏟아지는 경품 받자!



A photograph of a sunset over the ocean.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reating a bright orange and yellow glow that reflects on the water. The sky is filled with soft, colorful clouds in shades of orange, yellow, and purple. A small, dark boat is visible on the water in the lower left. The overall mood is peaceful and contemplative.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넌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걱정하자 마.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넌 그들보다 넓어지고 있으니까.

• 김동영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에서

내 인생의 책들

소설가 ● 김별아



20세기 남미 대표 작가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만약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의 궁전, 도서관처럼 뽁뽁이 책들로 둘러싸인 천국을 나 역시 꿈꾼 적이 있다. 그 구석자리에 쏙그려 앉아 깨알 같은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천 년 전을, 다시 천 년 후를 곱씹고 상상하는 행복한 꿈을.

●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소설, 문학, 그리고 책에서 배웠다. 우울한 외톨이였던 내게 책은 언제나 다정한 친구였다. 이따금 몸을 부러놓은 이번 생이 낯설어 서먹서먹

하고 어리둥절할 때, 나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격려한 것도 책이었다. 읽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책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잡고 함께 가야 할 벗이다.

● 내게 강렬한 인상과 영향을 준 책들을 꼽으라면 한두 권으로 골라 말할 수 없다. 사실 나는 정연한 독서가라기보다 난독을 하는 편이기에 특정한 어느 분야, 어떤 작가를 좋아한다고 못 박아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굳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고르라면, 내게 처음 문학의 매혹과 황홀을 가르쳐준 그 책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된다.

1970년대 후반, 내 나이 열 살 초등학교 3학년 가을 어느 날, 읍내에 불일을 보러 나갔던 아버지가 낡은 혼다 오토바이 짐칸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 돌아오셨다.

“네 열 번째 생일선물이다.”

아버지가 내 앞에 풀어놓은 것은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30권짜리 두꺼운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이었다. 제1권 영국편에서 제30권 고전편까지, 각 나라와 각 시대의 ‘명작’이 수록된 나름대로 컬러 삽화가 산뜻한 최신판이었다. 지금 봐도 수록 작품 목록이 꽤나 근사하다. 『올리버 트위스트』, 『비밀의 화원』, 『작은 아씨들』부터 『아라비안나이트』, 『아Q정전』, 『레미제라블』까지, 『상록수』와 『서유기』부터 『곤충기』, 『셰익스피어 이야기』, 『천로역정』까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와 『톨스토이 단편』까지……. 비록 어린이를 위한 요약본에 아마도 직접 번역이 아닌 일본어판의 중역이었겠지만, 작품을 선정한 안목만큼은 김동리, 김소운, 이원수, 정비석 등 쟁쟁한 편집위원들의 명성이 무색치 않다.

● 나는 정말 훌쩍 빠졌다. 끼니를 걸러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들리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읽다가 이제 그만 자라는 꾸중을 한바탕 듣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도 천장에 읽다 만 이야기들이 어롱어롱 왔다갔다 하여 몰래 이불을 들쓰고 또 책을 펼쳤다. 그렇게 꼬박 이틀 밤을 새워 속독으로 30권을 다 읽었다. 지금껏 몇 권의 동화책과 잡지로는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이 단번에 시원하게 해결되는 기분이었다. 그토록 황홀했던 이야기들, 헤쳐가면 헤쳐갈수록 깊어지던 신비의 숲. 나는 결국 어린 날 나를 포박했던 문학의 매혹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 누군가는 이제 문자가 아니라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문자적 상상력보다 훨씬 막강한 시각적 감각에 사로잡힌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책을 들추어 그 속에서 길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문학의 위기를 넘어서 종말을 말하는 위협적인 목소리까지 들린다. 정말 책으로 지어진 천국은 죽어서야 만날 수 있는 헛꿈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책을 읽고, 쓴다. 한편으로는 이런 누추한 운명이나마 받아들이야 한다는 각오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그러했듯 책에 매혹된 어리석고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1969년 강원도 출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1993년 실천문학
『달린 문밖의 바람 소리』 발표
2005년 제1회 세계문학상
1991년 제1회 청년심산문학상 수상
저서 『미실』, 『식구』, 『꿈의 부족』,
『축구전쟁』 등 다수



문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	용기·진실	도가니	공지영	창비	일반	중앙 김순옥
2	삶과 죽음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해냄	일반	김포 김성옥
3	가족애	아버지의 사과편지	무코다 구니코	강	일반	중앙 유승림
4	희망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샘터	일반	중앙 이은형
5	농촌·공동체	오래된 마을	김용택	한겨레출판	일반	평택 유현진
6	청년실업	부코스키가 간다	한재호	창비	일반	중앙 강수연
7	성장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일반	김포 안선영
8	삶과 사랑	마음 가는 대로	수산나 타마로	밀리언하우스	청소년	광주 김미진
9	삶이 허락한 작은 재미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	로버트 풀검	랜덤하우스코리아	일반	광주 최혜숙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추천 기간 2009. 7 ~ 2009. 9 |

이 도서들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홈페이지(www.happylib.or.kr)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0	재능교육	영재 공화국	안드레아스 잘허	서돌	일반	광주 최혜숙
11	공부법	핀란드 공부법	지쓰카와 마유	문학동네	청소년	중앙 박재연
12	자녀와의 대화법	소리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아이가 달라지는 잔소리 기술	최영민·박미진·오경문	고래박스	일반	포천 김지영
13	공부·학습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김태완	맛있는공부	일반	중앙 김정미

인문 과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14	고민에 대한 고찰	고민하는 힘	강상중	사계절출판사	일반	광주 이권녕
15	심리학·심리상담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김태형	부키	청소년	평택 윤영희
16	지능개발	다중지능	정효경	이지북	일반, 학부모	중앙 함은경
17	사랑·연애·고전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고미숙	그린비	일반	평택 유현진
18	한국 근현대사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선우진	푸른역사	일반	포천 윤정화
19	심리학 이야기	왜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 다를까	클리프 아이잭슨	21세기북스	일반	중앙 김미숙
20	심리치료·교양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일반	중앙 김영우
21	교양철학	철학 콘서트 2	황광우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김포 정은교
22	더불어 사는 삶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	이재현	성바오로	청소년	중앙 강수연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23	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	홍사중	새빛에듀넷	일반	평택 윤영희
24	성공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 실천편	한창욱	새론북스	일반	광주 김윤희
25	자기혁신·자기관리	불평 없이 살아보기	윌 보웬	세종서적	일반	여주 전미향
26	성공의 요소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김영사	일반	김포 정은교
27	소비심리	가격차별의 경제학	사라 맥스웰	밀리언하우스	일반	포천 정부중
28	세금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주용철	원앤원북스	일반	포천 김지영
29	헌법·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돌베개	일반	중앙 함은경

사회 과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30	우주여행	우주 엘리베이터	아날리르 세르칸	월북	일반	중앙 허춘자
31	자연생태 이야기	자연, 뒤집어보는 재미	박병권	이너북	일반	광주 이미경
32	환경문제	자연재해	타차나 알리쉬	해원출판사	일반	김포 이승희
33	뇌과학	브레인 콘서트	모기 겐이치로	브레인월드	일반	평택 박혜영
34	유전·생명공학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이은희	살림	청소년	포천 유희연

과학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35	음악사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	니시하라 미노루	열대림	일반	중앙 김미숙
36	디자인·디자이너	날아가는 비둘기 동구멍을 그리라 굿쇼?	홍동원	동녘	일반	평택 박상미
37	행복·여행	행복의 지도	에릭 와이너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중앙 함은경
38	예술치료·미술·에세이	그림이 그녀에게	곽아람	아트북스	일반	포천 이노경
39	아프리카·여성문제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	정은진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김포 이승희
40	여행 에세이	좋은 여행	이우일	시공사	일반	광주 김신혜

예술 취미

순서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41	성장소설	이빨자국	조재도	실천문학사	초등 5-6	중앙 노재금
42	생명과학	빨강 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	배정오	토토북	초등 5-6	중앙 김미영
43	이해와 존중	통조림에서 나온 소인들	정 위엔지에	웅진닷컴	초등 3-4	여주 이아란
44	옛날이야기 보따리	나불나불 말주머니	김소연	파랑새	초등 3-4	광주 김신혜
45	자연·일상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용택	창작과비평사	초등 4-6	평택 서부남
46	사랑·배려	도시락 안 싸간 날	고정욱	여름숲	초등 1-2	중앙 김정미
47	성장소설·소통·이해	한결음만 다가서 봐	이반 서덜	와이즈아이	초등 5-6	포천 노보형
48	성장동화	누가 내 도시락을 훔쳐갔을까?	예안더	해와나무	초등 1-2	김포 안선영
49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뭐든지 파는 아저씨	고정욱	영림카디널	초등 4-5	중앙 강수연
50	민주주의·권력	마지막 수수께끼	임정자	해와나무	초등 5-6	광주 김지은
51	책	책꽃이에 가지런히 책	재미난책보	어린이아현	유아	평택 김혜정
52	환경보호·환경지킴이	지렁이다	차보금	사파리	유아	중앙 강명희
53	엄마에 대한 편견	엄마가 된다는 것	최은영	푸른책들	초등 4-6	포천 채성희
54	가족의 소중함	옹구 삼촌	권정생	산하	초등 3-4	김포 김지연
55	불교동화·지비	마음을 훔친 도둑	우봉규	주니어김영사	초등 3-6	중앙 강수연
56	인물·역사	하늘의 법칙에 도전한 북학 사상이 흥대왕	고진숙	아이세움	초등 5-6	여주 이아란

어린이



도가니

공지영 | 창비 | 2009 | 29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용기·진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순옥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 해냄 | 2009 | 267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삶과 죽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성옥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니'는 사전적 표현으로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지영의 『도가니』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호기심 속에서 선택한 이 책을 읽고 나니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또 머리가 무겁고 답답했다. 하지만 그 안에 희망은 있었다.

누군가가 청각장애인을 폭행하여 혼수상태에 빠져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순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자폐학원의 청각장애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소설에서는 지체와 정신이 자유로울 수 없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폭력과 성폭력을 일삼고 있는 교육현장 비리의 모습도 속속들이 보여 주고 있다.

무직 상태에 있던 강인호가 자폐학원에 기간제 교사로 내려가던 날,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곧 폭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실마리가 되었다. 한 청각장애아가 기차에 치여 죽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각각의 이해집단들은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할 뿐 누구도 죽은 학생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살면서 종종 불합리한 일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잘못을 덮으려는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두 번의 상처를 받으며 더욱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도가니』는 위선과 폭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구하려는 어려운 삶의 주제를 사실감 있게 잘 실려낸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려는 고되고 힘든 싸움을 시작한다. 처음 이들의 힘은 미약하였으나,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창대한 끝을 이뤄내길 기대하며, 우리 자신도 주인공들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하겠다.

포르투갈 태생의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1998년 『수도원의 비망록』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주제 사라마구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당시 그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이유는 '상상력과 열정, 해학으로 가득 찬 그의 우화들은 덧없는 현실을 손에 잡힐 듯 그려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서는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그의 이름을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5년도에 처음 포르투갈에서 출판된 『죽음의 중지』는 비교적 그의 근간에 속하는 작품으로 사라마구의 철학이 깊숙이 녹아있다. 제목 『죽음의 중지』는 원어로는 'intermitências'이며 중단, 휴식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언뜻 책 제목만을 보고 '죽음의 중요한 의미라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 책장을 펼쳐보고는 웃음이 났다.

책의 본문은 '다음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다. 마지막 문장도 동일하다.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

한 도시(나라)에서 어느 날 자정을 기해 아무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주제 사라마구의 상상력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다. 현실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의 우연한 발생, 이유도 알 수 없고 누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는, 불가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심층적 심리에 대한 묘사는 사라마구 특유의 철학적 관점과 풍자적인 말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타고 흐른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그렇지만, 이 소설도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 정상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제관련도서 ▶ 진실과 거짓에 관하여

1. 거짓된 진실 / 데릭젠슨, 아고라, 2008.
2. 눈물은 힘이 세다 / 이철환, 해냄출판사, 2009.

주제관련도서 ▶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다른 소설들

1. 눈먼 자들의 도시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2.
2. 도를강어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6.
3.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 주제 사라마구, 해냄, 2008.



3 아버지의 사과편지

무코다 구니코 | 강 | 2008 | 31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가족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유승림

별것 아닌 소소한 것에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던 빈 화분에 핀 파란 새싹 하나,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었을 때 빵을 스치는 바람 한 줄.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 그렇지 않을까. 『아버지의 사과편지』는 저자의 평범한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소재로 큰 감동을 전하는 수필이다.

이 책의 저자인 무코다 구니코는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이다. 어느 날 그녀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한 잡지사로부터 짧은 글을 연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는다. 느긋한 유언장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재를 시작했고 이것이 2년 반 동안 이어졌다. 여기에 연재했던 글 24편을 모아 엮은 것이 『아버지의 사과편지』다.

저자의 옛 추억이 가득한 어릴 적 일상과 가족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이나 강한 어머니, 동생 세 명과 할머니와의 추억까지... 그다지 특별한 것 없는 가족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감동을 준다.

이 책은 특이한 구성이 인상적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기 따로 노는 듯한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결말에 와서 하나의 결론을 짓는다. 조각조각 맞추기 힘든 퍼즐을 맞춰보려 애쓰다가 한순간에 확 들어맞는 듯한 기분이랄까. 혹자는 이것을 마치 책상 위에 흩어진 보리수 열매를 실로 꿰어 순식간에 염주를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이 책은 제목이기도 한 '아버지의 사과편지'라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며 어머니와 자식에게 따뜻함을 비추지 않던 아버지가 자식이 한 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편지 끝에 '지난번에는 각별한 수고'라는 짧은 메시지로 전한다. 문득 무뚝뚝한 아버지가 나와 작은 언쟁이 있던 다음날 별다른 용건 없이 전화해서서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했던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찼했다.

추운 겨울 언 손을 녹이며 마시는 따뜻하고 새콤달콤한 유자차 한 잔 같다.

주제관련도서 ▶ 따뜻한 에세이 한조각 맛보기

1. 사랑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 김승훈 외, 지식노마드, 2009.
2. (힘든 당신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 송정연, 글로세움, 2009.
3. 할머니의 다락방 / 조남혁, 달과소, 2009.



4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 샘터 | 2009 | 236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희망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은형

얼마 전 암 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선생의 비보를 들으며 너무나 짧은 그녀의 생이 안타까웠고, 이제는 그분의 따뜻한 글들을 접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고인이 된 그분의 마지막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2000년 『내 생애 단 한번』 출간 이후 모 월간지에 연재된 글을 모은 작품집으로,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내면서 경험한 내용과 암 선고 후 투병 중에 쓴 글들이 실려 있다.

암 투병 중에 쓴 글들이라 베갯잇 적시는 글들로 눈물겨울 줄 알았는데, 내용이 밝고 희망적이다.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다. 교수라는 직함이 주는 이미지처럼 지적이고 교훈적인 문구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 장영희의 솔직담백한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장영희 선생은 원래 책 제목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을 발간할 때도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간되기 전에 후보에 올랐던 책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벽 창가에서,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 영희야, 빼만 추리면 산다, 나는 내게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추천 제목 '나, 비가 되고 싶다'였다. 그 중에 선택된 제목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위배되는 '기적'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선정했다고 한다.

비록 고인은 이 책이 출간되기 며칠 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눈물과 상처 또한 삶의 일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을 쫓아오는 작은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테니까.

주제관련도서 ▶ 장영희, 그녀를 더 알고 싶다

1.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샘터, 2005.
2. 내 생애 단 한번 / 장영희, 샘터사, 2000.
3. 축복 / 장영희, 비채, 2006.



오래된 마을

김용택 | 한겨레출판 | 2009 | 240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농촌·공동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유현진



부코스키가 간다

한재호 | 창비 | 2009 | 23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청년실업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그 여자에 집’이란 시로 알게 된 김용택 시인의 산문집이라 하여, 그 애
뜻하고 아름다운 문체가 그리워 읽게 되었다.

김용택 시인은 본인의 고향인 전라도 섬진강가 진매마을의 모교인 덕지
초등학교에 교사로 있다. ‘삼십칠 명의 장정들과 삼십칠 명의 아내들
이 삼십칠 채의 지붕 아래 식구들을 거느리고 오백년을 살았던 마을’이
‘다섯 명의 노인 내외와 홀로 사는 어머니들의 밤’이라고 표현하도록 많
은 변화를 겪은 농촌의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가 쓴 산문
집은 농촌의 모습을 서정적이고 친절한 문체로 전한다.

작가는 땅과 자연과 호흡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시절에는 많은
지식보다는 경우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또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따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고 노는, 남녀노소 모두 쓸모 있는 사람
이었던 그 시절을 저절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사회였다고 추억한다.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게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온기 없는 세상에서
끝없이 경쟁하고 시간과 싸우며, 내 것이 아닌 것은 돌아볼 여유를 갖기
힘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또한 큰 소리를 내지 않아 돌
아보지 못했던 우리 농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책을 읽으며 농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어도 농촌에 대한 아련한 향수
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과 친구하고 이웃과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따뜻하고 정겨운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오래된 마을』은 도시생활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소박하고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

1.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 윤구병, 휴머니스트, 2008.
2.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삶 / 김태원, 시골생활, 2008.

‘서른 살 소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을 익숙하게 받아들
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펼쳐며 살아
가야 하는 청년이지만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삶이 여전히 요원
해 보이기 때문이다.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처한 채 사회 노동력으로
서의 역할을 도외시 당한 이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수백만 명의 취업
준비생, 즉 백수들이다.

대학을 졸업한 3년차 취업준비생인 주인공은 어느 날 부코스키라고 불리
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침에 비가 오는 날이면 상점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난다는 부코스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매번 서울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부코스키를 주인공 역시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우연히 미행하게 된다. 그를 미행하는 이 추적담에는 설록흥즈와
같은 추리의 대반전이나 문제의 극적 해결과 같은 통쾌함이 숨어 있지
않다. 또한 그를 미행하는 동안 그의 정체는 파악하기는커녕 미행을 들
키는 어이없는 해프닝을 보여주는 등 추리소설에 대한 기대심리를 여지
없이 무너뜨린다. 오히려 이 소설은 흥미롭게도 미행이 오래 진행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 찾기로 초점이 맞춰져 간다.

세상에 내던져진 채 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소설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회에
분노하거나 스스로 좌절하는 형태로 그려지곤 한다. 이에 반해 『부코스
키가 간다』의 주인공은 반복되는 구직활동을 통해 점점 무기력감을 느끼
고 있지만 부코스키를 미행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결국 부코스키를 미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며 스스로에 대한 미행이다. 그러기에 비록
‘백수소설(?)’이긴 하지만 건설적인 성장통을 겪으며 내일을 향해 가는
많은 젊은이의 공감을 얻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책이 되리라 믿어본다.

주제관련도서 ▶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에너지 보강책

1. 백수 그 위대한 쫓겨남 이야기 / 최운학, 좋은책만들기, 2003.
2. 백수생활백서 / 박주영, 민음사, 2006.
3.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 조성주, 시대의창, 2009.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 창비 | 2009 | 25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안선영

수상한 동네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 한 소년이 찾아든다.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자리한 얼핏 평범해 보이는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는 말 그대로 진짜 마법사가 살고 있는 마법의 빵집이다. 그곳의 마법사는 사람들의 은밀하고 위험한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빵을 만들어 익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유일한 점원인 파란 앞치마의 소녀는 밤이 되면 파랑새로 변한다.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 빵집 오븐 속으로 들어오게 된 소년은 이 이상한 빵집에서 마법의 빵을 판매하는 것을 도우며 지내게 된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2009년 제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창비청소년문학상은 국내에서 청소년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많은 책들이 정작 그 책을 읽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외면을 받아온 현실 속에서 진정한 청소년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공모전이다. 2008년 제1회 수상작인 김려령의 『완득이』는 극적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소외계층 소년의 성장스토리라는 뻔하다면 뻔한 주제를 거침없이 시원하게 풀어놓음으로써 청소년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수상작 『위저드 베이커리』 또한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마주한 판타지 세계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외면 받던 소년에게 새로운 은신처가 되어 준다. 그 안에서 소년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나 가게 된다.

한번 손에 들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강한 흡입력과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주제관련도서 ▶ 청소년을 위한 성장소설

1. 완득이 / 김려령, 창비, 2008.
2. 유진과 유진 / 이금미, 푸른책들, 2008.
3. 까칠한 재석이 사라졌다 / 고정욱, 애플북스, 2009.



마음 가는 대로

수산나 타마로 | 밀리언하우스 | 2009 | 226p.
이용 대상 : 청소년
주제 : 삶과 사랑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미진

공향 한가운데 할머니와 한 소녀가 서 있다. 그 둘 사이에는 왠지 모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른다. 소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스러움을 양보하고 온갖 불행한 마음으로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의 손녀다. 서먹한 대화를 끝으로 손녀는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지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 의사는 요양원에서의 삶을 권하지만 할머니는 살아온 집에서의 평안한 삶을 선택한다. 할머니는 어쩌면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손녀를 위해 자신이 떠나고 없을 때 할머니를 대신할 수 있을, 생전에 가슴으로 대화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편지로 쓰기 시작한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할머니의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 할머니의 딸에 관한 이야기 등 지금의 할머니를 만든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석 달을 걸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인디언 속담처럼 타인이 걸은 길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되듯 손녀도 할머니의 편지를 보며 할머니를 조금씩 이해해간다. 할머니의 편지글 사이사이에는 할머니의 손녀딸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추억 사이사이에는 삶 속에서 몸소 느낀 삶의 따뜻한 충고들이 가득하다. 그중 특히 "네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아무 길이나 들어서진 마.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그랬듯이, 자신 있는 깊은숨을 들이쉬며 잠시 기다려 보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 네 마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 그러다 네 마음이 말을 할 때, 그때 일어나 마음 가는 대로 가거라."라는 글이 마음을 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강조되는 세상이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참 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

주제관련도서 ▶ 삶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책들

1.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 공지영, 오픈하우스, 2008.
2. 손녀딸 릴리에게 주는 편지 / 앨런 맥팔레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3. 당신이 희망입니다 / 고도원, 오픈하우스, 2008.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

로버트 뮐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 | 348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삶이 허락한 작은 재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최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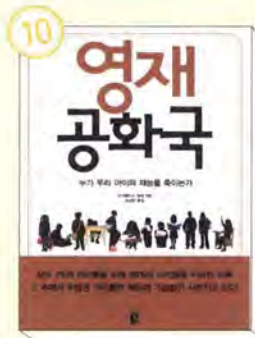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부가 팔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뮐검의 신작으로 자신의 기발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담긴 87가지의 에피소드를 저자만의 위트로 풀어낸 작품이다. 인생은 자신이 찾는 것만 보이고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저자의 나이는 일흔 초반, 70세가 넘는 할아버지라고는 믿기지 않는 순수함과 유머에 읽는 내내 유쾌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때엔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즐기며 집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찾아 채고 조사(?)하는 취미도 갖고 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원로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네에 앉아 노는 작은 기쁨을 즐기기도 한다.

삶이 허락한 작은 재미와 행복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저자의 글을 읽고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다면 신체적 나이와는 상관없이 감정적인 나이가 엄청 무뎠다는 증거일 것이다. 제대로 놀 줄 알고 생을 의미 있게 만들 줄 알며 지금 존재하는 좋은 것과 사랑스러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자의 생활 방식을 통해 감정 나이를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 또한 인생은 나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저자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 “좋은 것을 놓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라”는 내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이다.



주제관련도서 ▶ 삶의 작은 재미가 있는 책들

1. 서른한 개의 선물 / 유린, 더난출판사, 2008.
2. 작은 경이 / 바바라 킹슬버, 한겨레출판사, 2009.
3. 불량하게 나이 드는 법 / 세키 간테이, 나무생각, 2009.



영재 공화국

안드레아스 잘허 | 서돌 | 2009 | 244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아이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최혜숙**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아이는 드물다. 모든 아이들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일부만이 그 재능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육 개혁의 선두주자로 불리며 오스트리아 최초의 영재학교인 ‘칼 포퍼 학교’를 공동 설립한 안드레아스 잘허는 『영재 공화국(누가 우리 아이의 재능을 죽이는가)』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현실의 문제점과 아이들이 재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의 과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현실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와 열정과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 저자가 밝힌 교육시스템의 문제들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많이 닮아있다. 우리나라 교육전문가가 쓴 책이 아닌가 하여 저자를 몇 번이나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가 제시한 학교, 교사, 부모가 실행해야 할 과제들은 설득력을 가진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재능은 몇몇의 개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재능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조금씩 발전시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이 파괴되지 않도록 교사와 부모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어진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시한 이것 하나만이라도 명심한다면 아이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꿈, 희망을 응시하고 있는가?”

주제관련도서 ▶ 아이의 재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

1. 왜 자기주도학습일까 / 서삼민, 자상사, 2009.
2. 7세 전 창의두뇌교육 / 정철희, 21세기북스, 2009.
3. 우리 아이의 숨겨진 재능을 깨워라 / 카론 구드, 베이비북스, 2009.



핀란드 공부법

지쓰카와 마유 | 문학동네 | 2009 | 374p.
이용 대상 : 청소년
주제 : 공부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제연



소리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아이가 달라지는 잔소리 기술

최영민·박미진·오경문 | 고래북스 | 2009 | 287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자녀와의 대화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김지영

이 책은 저자 마유가 AFS(고등학생 교환유학을 주선하는 민간 국제교육 교류단체)를 통해 핀란드에서 1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핀란드의 교육 문화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쓴 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0년부터 세계 각국의 15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작하였는데, 핀란드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높은 수준으로 교육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경제 수준이 높은 핀란드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별로 없다. 특히 교육과 의료 면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받는다. 좋은 환경과 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이 나온 것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매일 학원에 다니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 일부터 학원까지 가서 배우지는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다. 이들은 절대로 수업 중에 즐기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교실 문화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핀란드의 시험은 거의 에세이(작문)다. 영어, 국어는 물론 화학, 생물, 음악까지 에세이 즉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핀란드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시험 방식이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 준비를 우리의 암기 형식과 다르게 읽기 형식으로 공부한다. 암기식 공부는 당장은 잘 볼 수 있지만 시험이 끝나면 머리가 텅 비어 버린다. 그러나 이들은 읽고, 그것을 쓰기 때문에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어 학업성취도 평가인 독해력, 과학적 응용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단연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어떤 공부법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핀란드의 읽고, 쓰기 공부법이 좋은 공부법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새로운 공부법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꼭 읽어 보길 바란다.

소리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아이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생활하면서 느꼈을 잔소리. 이 책은 이 '잔소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잔소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수요소 중 하나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간단하고 쉬운 잔소리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 앞부분의 '저자의 말'과 '프롤로그-이 책을 읽는 방법' 두 장을 읽어 보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잔소리에 대해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잔소리의 중요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잔소리에 관한 상식을 알려주고 어른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특징 19가지를 각 1~2페이지씩 짧게 설명하였으며, 잔소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27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잔소리하는 방법을 자녀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나이에 따른 잔소리 방법', '성격에 따른 잔소리 방법', '성별에 따른 잔소리 방법'으로 나누었다. 잔소리 잘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11가지로 요약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63p - ① 짧게 할 것 ② 반복하지 말 것 ③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④ 인신에 대한 비판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만 할 것 ⑤ 화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지 말 것 ⑥ 잘못된 일에만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

위의 방법만 알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잔소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잔소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잔소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중간 중간 Tip 코너에서 잘못된 잔소리 방식에 대해 서술하는 등 구성이 쉬워 부모님들이 읽기에 좋다.

주제관련도서 ▶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

1. 16배속 공부법 / 모토야마 가쓰히로, 웅진지식하우스, 2009.
2. 공부역전 공부법 / 론리스터디, 론리스터디, 2008.
3. 1등 공부법 / 김진구, 경향미디어, 2008.

주제관련도서 ▶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를 위한 책들

1.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아이를 칭찬하는 법 꾸짖는 법 / 하마오 미노루, 비즈니스 세상, 2009.
2. 아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 / 정경옥, 미디어월, 2009.
3. 딸은 세상의 중심으로 키워라 / 마츠나가 노부후미, 21세기북스, 2007.

13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김태완 | 맛있는공부 | 2009 | 267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공부·학습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정미

14



고민하는 힘

강상중 | 사계절출판사 | 2009 | 184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고민에 대한 고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이권녕

학창시절 가장 하기 싫었던 것, 하지만 꼭 해야만 했던 것, 바로 공부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힌다. 아마도 죽는 그날까지 공부와의 애증(?)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정말 하기 싫고 어려운 공부가 어떤 이에게는 즐겁고 또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희망의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에서 그런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조선일보 교육미디어의 취재팀장으로 매주 교육섹션 '맛있는 공부'를 제작하고 있는 김태완 씨가 각각의 주인공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20명의 유명인사의 삶과 공부에 관한 이야기다.

실명을 딛고 일어난 철학박사로 유명한 강영우 박사에서부터 얼마 전 암으로 고인이 된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 자녀 몫의 약간의 재산을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 작성으로 화제가 되었던 세계 최고의 흥부외과 전문의 송문근 교수 그리고 『7막 7장』의 주인공 흥정욱 씨에 이르기까지, 책 속 인사들의 삶과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지금의 나 자신이 얼마나 더 분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또 그만큼 사회적 성공과 명예, 부를 거머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진실도 새삼 생각해볼게 한다.

현재의 자신을 채찍질하고 싶다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여기 20인 멘토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자.



주제관련도서 ▶ 열심히 공부하자!

1.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 이시형, 중앙북스, 2009.
2. 16배속 공부법 / 모토야마 가쓰히로, 웅진지식하우스, 2009.
3.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 박철범, 다산에듀, 2009.

우리는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소소하게는 먹고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철학적인 문제까지 개인에 따라 고민 거리는 다르겠지만 살아가는 동안 고민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세계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해봤을법한 고민의 답을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작품과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사상에서 찾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근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살다 간 제국주의 시대에서 현대사회와 동일하게 인간 소외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포착하여 거기서 파생되는 고민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이끈다. 나쓰메 소세키는 다양한 작품으로 후대 근현대 일본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작가로 일본 천연권 지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막스 베버는 종교사회학과 정치체제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사회학자이다. 한 사람은 문학작품 속에서 또 한 사람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그들의 고민이 녹아든 저서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자아에 대한 고민, 인생의 의미, 사랑의 의미, 죽음의 의미 등에 대한 대답을 찾아 풀어낸다. 책을 읽는 동안 본문 중에 소개된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작품을 만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 책의 저자가 그랬듯 그들의 저서 속에서 내 삶의 고민에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저자의 말을 되새기니 앞으로는 고민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관련도서 ▶ 고민의 흔적이 스며 있는 나쓰메 소세키 작품들

1. 마음 / 나쓰메 소세키, 이레, 2008.
2.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나쓰메 소세키, 문학과 사상사, 2008.
3. 그 후 / 나쓰메 소세키, 민음사, 2003.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김태형 | 부키 | 2008 | 278p.
이용 대상 : 청소년
주제 : 심리학 · 심리상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윤영희



다중지능

정효경 | 이지북 | 2008 | 224p.
이용 대상 : 일반, 학부모
주제 : 지능개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함은경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매우 흥미롭다. 간혹 나의 마음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싶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이 책은 딱딱한 이론이 아닌 일대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직접 보여주어 심리 상담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심리 분석 대상은 음악사를 길이 빛낸 거장 베토벤이며,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의 이미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류 최고의 작곡가라 할 수 있는 악성(樂聖) 베토벤. 불굴의 정신력으로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목숨보다 소중한 청력을 잃었고, 이루어지지 못할 불멸의 연인과의 사랑, 조카 카를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 등 불우하고 외로운 생을 살았다. 심리학자인 저자의 눈에 비친 베토벤의 불우한 삶은 알려진 바와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라는 단순히 나쁜 아버지, 좋은 어머니와의 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이에 저자는 베토벤과의 가상 대화 형식을 빌어 어린 시절 베토벤과 부모와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런 관계를 심리분석으로 풀어가며 베토벤에 관한 새로운 진실을 들려준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저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는 동안 베토벤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분석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

인생에 있어 성공과 행복은 뭘래야 뭘 수 없는 관계이다.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개발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꿈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일단 공부부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성은 언제부터 찾아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저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라고 대답한다. 아이의 적성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므로 적성에 대한 관심, 미래 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적성을 찾는 방법으로서 다중지능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중지능 교육 방식을 적용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적용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중지능이론에서 보면 우등생의 개념은 달라진다. 학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먼저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숨은 소질의 계발을 중시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학부모들은 지능 계발이 사춘기 이전에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뇌 성장과 지능 계발은 엄연히 다르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20대 초쯤 비로소 제대로 형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다 자란 성인의 뇌 신경 세포 역시 증식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즉, 인간의 두뇌 발달은 어느 시점에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두뇌의 성장이 평생 계속되는 만큼 새로운 지식의 축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저자의 인물 심리분석 시리즈

1.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 김태형, 역사의 아침, 2009.
2.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 / 김태형, 예담, 2009.

주제관련도서 ▶ 다중지능 관련서

1. 다중지능 / 하워드 가드너, 웅진지식하우스, 2007.
2. 다중지능혁명 / 홍성훈,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17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고미숙 | 그린비 | 2008 | 27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사랑·연애·고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유현진



18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선우진 | 푸른역사 | 2008 | 351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한국 근현대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윤정화

서명이 다소 자극적인 이 책은 고전평론가인 저자가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문서적이다. 저자 고미숙은 고전평론가답게 책 전반에 동의보감, 불교사상, 니체 등의 고전을 다수 인용하였다.

1부 사랑과 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서는 현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편견을 짚어본다. 2부 국가와 가족, 학교 그리고 소핑물 청춘의 몇에서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되짚어 본다. 3부와 4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다. 사랑에 있어서 문제는 대상이 아닌 '나' 이기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재능, 건강, 재물 등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나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 사용하다 보면 사랑의 대상도 만날 수 있고, 사랑에 쏟는 에너지도 분산시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별한 이들에게 사랑도 생로병사를 겪기 마련이므로 이별을 아파하되 이를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삶의 크기만큼 사랑의 열정도 자라기에 사랑에 있어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랑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고전의 재해석이 새롭고 흥미롭다. 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이야기거리가 많아 다양한 작가의 생각, 고전 속 이야기들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편한 문제로 강연하듯 풀어놓는다. 따라서 고전과 인문이라는 어렵게 느껴지는 자료를 인용했음에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공통의 리듬을 구성하게 된 시간대를 '시절인연'이라고 한다. 책에서 소개한 대로 나와 세상에 대해 공부하고 사색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호흡하다 보면 시절인연을 만나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비서였던故선우진 선생님의 마지막 회고록이다. 선우진 선생님은 1943년 광복군에 입대, 1945년 1월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백범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단독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남북 협상차 38선을 지나 평양에 가신 후, 1949년 6월 26일 안두희가 쓴 총탄에 맞아 김구 선생님이 서거한 날까지 함께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구 선생님을 모셨기에 선우진 선생님이 전하는 백범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욱 진솔하게 다가온다. 마지막 독립운동,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1945년 해방 등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백범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조국통일에 헌신하신 모습과 범부를 자처하면서 따뜻한 인간애와 검소, 절제를 몸소 보여주시며, 당시 자신이 으뜸이 되기보다 나라와 국민을 섬긴 겸손함까지 전하고 있다.

지금도 안타까운 백범 선생의 서거 당시 상황을 저자는 이렇게 전한다. "1949년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포병 소위 안두희가 백범을 만나기로 청했고 낮 12시 40분쯤 안두희를 경교장 2층의 백범 선생에게 안내한 저자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지하식당으로 내려갔다. 순간 위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2층으로 뛰어간 저자의 눈에 비친 것은 손에 권총을 든 안두희의 모습이었다. 권총을 계단에 떨어뜨린 안두희는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했고 백범의 얼굴과 오른쪽 가슴에는 붉은 피가 왈칵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자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수행비서로서 선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45구역 권총을 차고 있었던 안두희에게 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지 아직도 한스럽다"고 회상한다.

이 책을 읽고 싶다면 그때의 아픔, 분노, 슬픔이 가슴 깊숙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주제관련도서 ▶ 사랑에 대하여

1. 사랑의 기술 / 에리히 프롬, 문예출판사, 2006.
2.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 알랭 드 보통, 청미래, 2007.
3. 헤세의 사랑 / 헤르만 헤세, 그책, 2009.

주제관련도서 ▶ 역사 속의 위인들

1. 이순신의 두 얼굴 / 김태훈, 창해, 2004.
2. 인도에는 간디가 없다 / 마크툰슨, 오늘의 책, 2003.
3.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 박순교, 푸른역사, 2006.



19 왜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 다를까

클리프 아이잭슨 | 21세기북스 | 2009 | 283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심리학 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숙

사람은 제각기 특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간혹 사람들의 다른 성격은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 사이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곤 한다. 아마도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전문 카운슬러이자 미국 심리치료협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클리프 아이잭슨은 『왜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 다를까』라는 책을 통해 출생 순서에 따른 다섯 가지 성격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출생 순서에 따른 성격의 이론을 수용해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의 처음 부분은 출생 순서에 따른 대체적인 성격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출생 순서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심리적 출생 순서'를 여러 테스트를 거쳐 찾아준다. 예를 들어 심리적 출생순서는 첫째로 태어난 자녀도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심리적 넷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심리적 출생 순서를 파악하고 나면 각 심리적 출생 순서에 따른 특징적인 성격을 세세히 설명한다.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미처 자신도 알지 못했던 성격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고 가족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인정하게 된다.

간혹 나조차도 나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자기 탐험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준비할 수 있고 단점들도 좀 더 쉽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과 심리적 차이의 인지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의 출생 순서에 따른 성격의 비밀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 심리학 이야기

1.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 토니아 레이먼, 21세기 북스, 2009.
2. 예술가들의 이상심리 / 정유석, 랜덤하우스, 2009.
3. 결혼의 심리학 이론의 심리학 / 임성선, 아름다운 사람들, 2009.



2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 쌤앤파커스 | 2009 | 300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심리치료 · 교양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영우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을 서점에서 처음 접했을 때, '과연 내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궁금증에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이 책은 정말 유쾌하다. 피시식 거리며 웃음 짓게 한다. 성공이라는 곳을 향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온 남자들, 삶과 존재의 일부인 결혼, 육아, 직업, 성공, 책임, 연봉 등의 문제에 대해 일상의 현상을 대변해주는, 특히 '아내'라는 이름의 매개체를 통해 유쾌한 일상을 대입시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풀어어나가고 있다. 저자의 맛깔스런 글 솜씨는 읽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다. 행복의 60%를 결정하는 내·외적 조건은 우선 외향적인 성격이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야 하고, 종교를 가져야 하며 건강하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갖추어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사는 게 재미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는 게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어야 하는 능력이 행복을 결정하는 나머지 40%가 된다고 강조하며, 그런 느낌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는 게 무기력해지고 행복의 본질을 찾고 싶을 때 한 번 읽어보면 좋겠다. 재미있는 심리묘사와 더불어 해결 방안을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제시해 주고 있다. 아내 혹은 여성들이 외롭고 허전한 남자들의 심리적 결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서지만, 함께 읽어보고 동반자로서 생각을 공유해보면 좋을 듯하다.

주제관련도서 ▶ 심리치료 및 교양

1.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 / 김태형, 예담, 2009.
2. 나는 위로받고 싶다 / 이룸트라우트 타루, 펼침, 2009.
3. 핑거북 나를 말하는 손가락 / 존 T. 매닝, 고즈윈, 2009.

21



철학 콘서트 2

황광우 | 웅진지식하우스 | 2009 | 243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교양철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교

22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

이재현 | 상비오로 | 2005 | 246p.

이용 대상 : 청소년

주제 : 더불어 사는 삶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제목을 보고 철학 입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책은 철학 입문서라기보다 교양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흔히 철학 입문서라고 하면 철학 사상을 설명하거나 철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세상을 바꾼 사상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 같은 철학자뿐 아니라 시인으로 알고 있는 호메로스나 과학자로 알려진 갈릴레이와 뉴턴 등의 인물까지 다루고 있어 이 책을 철학서라기보다는 교양서로 얘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철학 콘서트 2』는 우리가 수학책에서 들어본 피타고라스와 과학자로 알고 있는 갈릴레이와 뉴턴,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철학자로 언급되지 않는 사상가들을 철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철학은 지식의 최전선에 서서 진리를 캐나가는 학문이다. 따라서 모든 철학자는 혁명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적인 발견을 한 사람들을 철학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상을 철학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상가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작품에 대한 해석도 한다. 나는 그들의 작품을 알고 어떤 작품인지 호기심을 갖긴 했지만 쉽게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은 사상가들의 사상을 작품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작품에 대한 감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철학사상이나 철학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책 속에 등장하는 사상가들의 사상이나 작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완성도를 더했던 그 영화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이었다. 또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지역색과 문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흑인 배우들의 역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영화를 볼 당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나는 흑인들의 고통 받는 삶에 대한 이해나 고찰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남수단 톤즈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현 신부님의 체험기를 읽고 있노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나야 배급을 받을 수 있는 탓에 건강이 회복된 것이 기쁘지 않은 이들. ‘소’ 하면 일이 떠오르는데, 그런 ‘소’와 다를 바 없는 이곳 여성들의 취약한 인권, 유전을 차지하기 위한 북부인의 야욕으로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남부 수단인들. 내전에 내몰려 자신의 키보따 큰 총을 들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어쩌면 내가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대인으로서 새로운 숙제를 받은 느낌을 받았다.

하루하루를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갈래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들에게 나는 나누어 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한 거지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하느님을 원망하며 말했다. ‘하느님 왜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라고. 그때 하느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단다. ‘그들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우리 모두가 그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제관련도서 ▶ 철학, 그 다양함에 대하여

1. 현대사회와 철학 / 정영희, 교육과학사, 2009.
2. 위대한 생각들 / 황광우, 비아북, 2009.
3. 실천철학 오늘의 삶을 말한다 / 이정일, 이담북스, 2009.

주제관련도서 ▶ 나눔의 삶

1. 복떡방 이야기 / 정정섭, 두란노, 2009.
2. 내 영혼의 리필 / 리처드 p. 존슨, 바오로딸, 2003.
3. 삶의 지혜를 나누는 40가지 멘토링 / 로버트 J. 워스, 바오로딸, 2007.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

홍사중 | 새빛에듀넷 | 2009 | 246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스토리텔링 마케팅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윤영희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 실천편

한창욱 | 새문북스 | 2009 | 284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성공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윤희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 즐겨 들던 옛날이야기의 추억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왔으며, 그런 삶 자체도 한 편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참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가 많은 민족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자원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은 이야기가 돈이고 산업이며, 이야기가 문화가 되고 미래가 되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 독자들에게 이미 생산의 핵심동력이 이야기 사회, 이야기 혁명시대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정보나 IT 첨단기술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제품에 담겨있는 이야기, 즉 브랜드와 같은 상징성에 따른 시장의 변화, 이야기산업, 문화콘텐츠의 생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품의 기능적 특성보다 소비자의 꿈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가 뜨고 있고, 재미있는 상상력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이 소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비디오 시장까지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다.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 마케팅 전략으로 전문학적 재화를 창출해내며 국가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이가 고급 예술의 대중화, 문화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저자가 기획했던 파격적인 문화마케팅 이야기와 능숙한 이야기꾼답게 우리 시대의 문화에 대한 지론을 저자의 상상력과 소신을 담아 재미있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는 곤궁하고 어려웠던 유년시절,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늘 책을 가까이하며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고향의 옛 집을 '책 읽는 집, 옥란재'라 지었다 한다. 상상력의 대가를 키운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 21세기 이야기 전쟁 시대의 승자가 되고 싶으신 분, 미래의 인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오늘날 자기계발서나 성공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책을 모두 보라고 권할 수는 없다. 또한 읽은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책을 덮고 나면 쉽게 잊히는 내용의 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크게 시간 관리, 이상 관리, 인맥 관리, 열정 관리로 간추려 지극히 평범하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할까? 사전을 펼쳐보면 '성공(成功) :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라고 되어 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이다. 성공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성공은 자신이 예기한 결과로 얻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나온 세월이 빚어낸 작품이다. 변신을 꿈꾸지 않는다면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닌 '나이만' 먹게 될 것이다.

'지금의 나'에서 탈피해 '또 다른 나'로 변신하고 싶은가?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눈앞이 밝아지며 가슴속에서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읽어보라.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으로 멋진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보자. 아주 작은 습관이 하루, 한 달, 일 년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변화한 당신의 모습에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 가지 비결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열 가지 잘못을 자신의 체크 포인트로 활용해도 좋을 듯하다.

주제관련도서 ▶ 이야기가 상상력이 이끌어가는 미래 산업

1. 드림 소사이어티 / 롤프 앤센, 리드리드출판, 2005.
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 최해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3. 스토리 노믹스 / 수잔 가벨리우스, 미래의 창, 2009.

주제관련도서 ▶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자

1. 인생에 리하설은 없다 / 청사오거, 신원문화사, 2006.
2.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 조 바이텔, 눈과마음, 2008.
3. 이야기꾼 / 짐 로허, 스마트비즈니스, 2009.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윌 보웬 | 세종서적 | 2009 | 244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자기혁신 · 자기관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전미향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 김영사 | 2009 | 351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성공의 요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교

하루에 불평을 몇 번 정도 할까? 나의 하루를 생각해보니 '누가 내 차 옆에 가까이 주차해 댔어'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읽던 책을 왜 서가에 끼워 둔 거야' 등 하루 종일 투덜거리는 듯하다. 난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나의 불평하는 버릇을 잡재워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펼쳤다.

이 책은 불평하지 않고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격게 되는 네 개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마지막은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이다.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불평 없이 살기 위한 실천방법은 21일 동안 불평을 참는 것이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한쪽 팔목에 끼우고 있다가 불평할 때마다 다른 쪽 팔목으로 옮긴다. 고무밴드를 21일간 한쪽 팔목에 차고 옮기지 않게 되는 순간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천 과정과 의식의 변화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21일 동안의 행동으로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지만, 책 곳곳에 있는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고무밴드가 아니어도 나만의 규칙을 정해서 실천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라.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 마음을 바꾸어라. 불평하지 마라"는 책속 문장을 되새기며, 나처럼 투덜이 스머프(Grouchy Smurf)였던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실천하여 익살이 스머프(Joke Smurf)가 되어보자.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제목만 보고도 이 책을 서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공지침서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성공의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성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주는 책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얘기할 때 재능과 노력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재능과 노력을 기본으로 기회라는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성공에 이르기 힘들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회'를 '성공'의 큰 부분으로 다루면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기회를 '개인적인 기회'와 문화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기회 부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성공에 재능과 노력만이 아닌 '기회'가 작용했다고 말한다. 유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의 사례로 '완곡어법'과 '벼농사문화'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언어습관이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벼농사문화'를 바탕으로 생긴 '근면·성실·끈기'의 문화적 유산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수학 부분에서 뛰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사회적 기회'를 제공받았음을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기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책이다.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지만 평범함을 넘어서 수 없는 사람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삶의 활력소가 될 좋은 습관

1. 시크릿 / 론다 번, 살림Biz, 2007.
2.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 한창욱, 새론북스, 2009.
3. 머리가 좋아지는 하루 습관 / 요네야마 기미히로, 예인, 2009.

주제관련도서 ▶ 성공에 대한 생각의 전환

1.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 / 오정환, 호이테크스, 2009.
2. 르네상스형 인간 / 마거릿 로벤스타인, 돌출새김, 2009.
3. 오기발동 모드 / 김용, 위너스북, 2009.



가격차별의 경제학

사라 맥스웰 | 밀리언하우스 | 2008 | 235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소비심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정부중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주용철 | 완산원북스 | 2009 | 235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우리가 모르는 세금 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김지영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두려움 때문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까지 저마다 열 감지센서와 소독제를 구입하고, 국민들도 마스크와 온도계를 구입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구입하지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품들도 가격이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어느 한 영화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현장 예매 할인만 가능했던 것을 인터넷 예매 할인도 가능하도록 영화관 시책을 바꾸었다. 그러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혼잡한 시간을 피해 영화를 예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영화관 측에서도 빈 좌석으로 영화 상영을 하는 것보다 할인된 금액만큼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미국 경제학자인 사라 맥스웰은 이 책에서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가 아닌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패턴, 기업과 고객의 윈윈전략, 기업의 공정한 가격 등의 설명과 여러 가지 가격 책정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가격에 대한 경제학적인 안목과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첫 번째 단락 가격에 숨겨진 비밀에서는 소비자의 반응과 가격의 결정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인 유혹하는 가격, 떠나게 하는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기업과 소비자의 윈윈(WIN-WIN) 가격에 대한 방법과 사례들을 제시해준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할인마트나 카페에 가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묶음 물건이나 빅 사이즈의 커피 잔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책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몸값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잘 알아야 몸값이 올라간다.” - 세이노

책의 맨 앞쪽에 있는 문구다.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적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수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는 세금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를 짚막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놓은 책이다. 총 12가지 챕터에 99가지 세금에 관한 주제들을 각 한 장으로 엮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용어들을 따로 풀이해 놓았고, 재미있는 그림도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2가지 주제에는 -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4대 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가 있다. 각 소주제들은 총 99가지인데 우리가 평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세금의 종류와 내용 설명이 간단하고 쉽게 풀이되어 있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세금 정보는 이 책 한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2번째 주제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편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 부당한 처분을 당한 경우의 심사청구 절차에 관해서도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을 읽고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부당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주제관련도서 ▶ 가격의 경제

1. 가격의 경제학 / 조성기, 책이있는마을, 2009.
2. 프라이싱 전략 / 토마스T.네이글, 거름, 2006.
3. 가격 결정의 기술 / 라피 모하메드, 지식노마드, 2006.

주제관련도서 ▶ 세금 관련 유익한 책

1.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 / 노병윤, 비즈니스북스, 2008.
2.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가가치세 / 김동혁 외, 새로운 제안, 2008.
3. 세금증빙 비법노트 / 손원준, 지식만들기, 2009.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 돌베개 | 2009 | 379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헌법 · 민주주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함은경

최근 1, 2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인 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해 어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큰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유시민 前 장관의 민주주의와 그 근원인 헌법에 대한 책이 발간되었다. 그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젊은 날의 민주화 운동 참여와 국회의원 및 장관직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 책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 후불제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비용을 아직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은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시민혁명을 치르지 않고 민주주의가 명시된 헌법을 먼저 갖게 된다. 그리고 4·19, 5·18, 6월 항쟁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 3권을 먼저 보장받고, 양성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전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주어진 헌법을 갖게 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는 서양의 민주주의 선진국 헌법을 복제한 대한민국 첫 헌법을 공포하고, 이로써 우리 헌법은 단숨에 최고 문명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 특성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는 처음부터 잠재된 위험이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법률 지식이나 이론을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이다. 이론적 설명이 아닌 저자 본인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한결 쉽고, 헌법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의 현실을 바라보는 간결하지만 마땅해 보이는 메시지들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결국 시민 개개인이 각성하고 진보하는 만큼, 꼭 그만큼 씩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유시민의 저서

1. 거꾸로 읽는 세계사 / 유시민, 푸른나무, 2008.
2. 대한민국 개조론 / 유시민, 돌베개, 2007.
3.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 유시민, 푸른나무, 2004.



우주 엘리베이터

아닐리르 세르날 | 월북 | 2009 | 215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우주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허춘자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싣고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보며 우리는 환호했다. 그러나 그 환호도 잠시 한쪽 페어링의 분리 실패로 공전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위성발사체는 지구로 낙하하면서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뉴스에 한동안 실망하고 우울해진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7년의 준비과정과 엄청난 재정적 투자 등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다는 상실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주로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저자의 기발한 상상력을 결합시킨 『우주 엘리베이터』의 설계 계획은 충분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는 지상에서 곧바로 우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시작점까지 서들을 쏘아 올려 승무원이 승객들을 우주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구조라 한다. 그럼 어떻게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느냐라는 질문에 저자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던 것뿐이다"

터키 최초의 우주비행사 후보이자 우주 물리학자인 저자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엉뚱한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즉,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의 비밀, 노아의 방주에 얽힌 과학적 진실, 시간의 시작은 어디인가라는 원초적인 궁금증 등을 우주와 지구를 종횡무진하며 과학이라는 드넓은 세계를 통해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놀라운 발명과 발견이 계속되어 왔고, 미래에도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제관련도서 ▶ 우주와 만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

1. 우주의 시작과 끝(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호킹까지) / 파블로스 피사노스, 일출봉, 2009.
2. 돈 안 들이고 우주를 여행하는 85가지 방법 / 비밀상연구회, 태학원, 2008.



자연, 뒤집어보는 재미

박병권 | 이너북 | 2009 | 256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자연생태 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이미경

이 책을 보고 읽을지 말지가 고민된다면 우선 딱 한 장만 읽어보자.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책도 마찬가지다. 자연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이겠거니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한 나에게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자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과학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순식간에 일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자는 고정관념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 본래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가령 꽃은 생식기이고 잎은 팬티(?)에 해당한다는 것, 참은 죽은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 대나무는 청렴하다는 편견과 달리 다른 생물을 발발이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오동나무를 뒤뜰에 심는 이유 등 기발하고 재미난 이야기들과 더불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삶을 유지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는 뜻밖의 자연생태 이야기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뀌어나간다면 세상은 점점 재미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주제관련도서 ▶ 자연생태 이야기들

1. 산사의 숲 초록에 젖다 / 김재일, 지성사, 2009.
2. 생태학 개념어 사전 / 에니스트 칼렌바크, 에코리브로, 2009.
3. 신갈나무 투쟁기 / 차윤정 · 정승훈, 지성사, 2009.



자연재해

타차나 알리쉬 | 해원출판사 | 2009 | 200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환경문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이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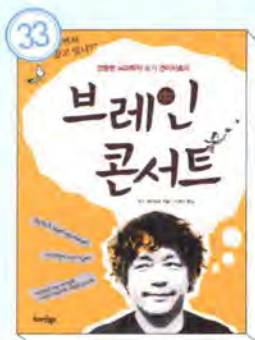
올해 여름은 더운 날씨와 함께 장마가 시작되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연일 내리는 장맛비로 인해 전국의 비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꾸준히 보도되었고 예년과 다른 여름철 날씨 변화로 인해 기상청에서는 올해부터 장마 예보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이상 현상과 더불어 2004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동남아시아의 쓰나미와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태풍 카타리나, 이를 뒤따르는 해일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지닌 자연재해는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자연의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책속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와 우리에게 위협적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재해들과 기후 변화에 대해 사진과 함께 유형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렵고 방대한 주제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Max Frisch)의 "살아남는다면 그 재앙은 사람만이 기억할 뿐, 자연은 재앙을 모른다"는 말처럼, 설사 지구에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자연은 계속해서 존재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은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같은 결과만을 초래할 뿐, 우리가 자연에 반하는 행동 하나 하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되새겨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자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 쉽게 읽는 자연 이야기

1. 위험한 행성 지구 : 브린 버나드, 주니버김영사, 2008.
2. 사라진 내일 / 헤더 로저스, 삼인, 2009.
3.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 / 박진섭, 창비, 2008.



브레인 콘서트

모기 겐이치로 | 브레인월드 | 2009 | 237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뇌과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박혜영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이은혜 | 살림 | 2009 | 272p.
이용 대상 : 청소년
주제 : 유전 · 생명공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유희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저것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통에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었던 경우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잊고 있던 옛날 일부터 평소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던 사건들까지 또렷이 떠올러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전두엽에 있는 기억 창고와 대뇌변연계나 전전두엽의 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이 튀어나온다.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기억의 지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자신도 잊고 있던 추억이나 감정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뇌의 다양한 기능과 이해되지 않았던 일상 속 상황들, 나의 행동들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관장하는 뇌의 움직임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슬픔, 기쁨, 분노 등의 감정의 메커니즘 또한 뇌의 활동에 따라 표현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알게 된다. 저자는 눈이 마주칠 때 뇌가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미술작품이나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뇌의 '보상(즐거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베아트릭체 첸치의 작품 속 아름다운 여성의 눈과 마주친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이 심장이 뛰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는 데서 비롯된 스탕달 신드롬의 현상이 바로 이러한 뇌의 활동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머리가 좋아진다면...'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머리가 좋다는 의미는 뇌의 어떤 활동이 있기 때문일까? 이 책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일상에서 느낌, 행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뇌의 비밀을 풀다

1. 기억을 찾아서 / 에릭 캔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2. 똑똑한 뇌 사용설명서 / 샌드라 아모트, 살림Biz, 2009.
3. 기억을 부르는 뇌 / 노먼 도허지, 지호, 2008.

자식은 대부분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예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인간의 호기심은 유전에 대한 비밀을 밝혀나갔고 그 과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저자 이은혜는 그만의 색깔과 문체로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과 생명공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전의 법칙, DNA, 염색체, 유전자와 미래에 대한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세히 들어가면 자칫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을 그림과 적절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각 장과 장 사이에 있는 쉬어가는 페이지에서는 CSI 등 미국 드라마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과학적 관점은 물론 도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오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동생에 대한 얘기는 특히 기억에 남는다. 오빠에게 골수를 제공하기 위해 태어난 여동생은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라는 방법을 통해 태어났다. 이 방법은 배아의 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강한 것으로 판명되면 자궁에 착상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다. 원래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처음부터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생겨난 기술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건강한 아이'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학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다.

유전의 비밀은 단지 아기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느냐에 대한 대답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전을 이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인간으로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신비로운 유전 이야기

1. 다윈의 식탁 / 장대익, 김영사, 2008.
2. X염색체의 복수 / 올리비에 포스텔 비네이, 기린원, 2008.
3.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전학 / 래리 고닉, 공리, 2007.

35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

니시하라 미노루 | 열대림 | 2009 | 272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음악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숙

많은 문화적 요소가 그러하겠지만 음악 또한 당대 역사의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음악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그 시대의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는 이런 음악의 역사를 음악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생전엔 인기가 없었지만 오늘날에 대음악가로 존경을 받거나, 당대엔 명성을 떨쳤지만 사후에 명성이 사라져 버린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바흐부터 20세기까지의 시대 흐름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살리에르의 모차르트 독살설과 미식가로 유명했던 로시니, 과대망상증 환자로 불린 베를리오즈, 가난뱅이로 불렸던 슈베르트 등 당대 위대한 음악가들의 인생 이야기를 재밌게 읽다 보면 어느새 음악사의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된다. 때론 아이같이 맑은 심성을 표현한 작품을 남긴 모차르트가 정말 책속에서처럼 천박하고 야한 농담을 즐겨 했던 사람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책속의 온갖 추측들과 엇갈리는 비판과 예찬의 목소리들 속에서 정말 음악가들의 모습과 인생은 어떠했는지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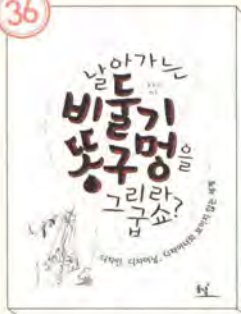
이 책은 음악가들의 에피소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혀 가볍지 않고 그 속에 당대 음악사의 흐름과 판도까지 알차게 분석되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음악가들의 음악을 다시 한 번 들어보며 책을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음악사 이야기

1. 음악의 즐거움 / 김혜정, 도솔, 2007.
2.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서양 음악사 / 오카다 아케오, 삼양미디어, 2009.
3. 그림이 있는 음악사전 / 편집부, 음악세계, 2008.

36



날아가는 비둘기 똥구멍을 그리라 급쇼?

황동원 | 동녘 | 2009 | 296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디자인 · 디자이너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박상미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전문집단의 거창한 영역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디자인이 많이 가벼워졌다. 거의 우리 생활 자체라고나 할까?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라면 경쟁력은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여 지는 모든 것에서 디자인을 빼 버린다면 대체 뭐가 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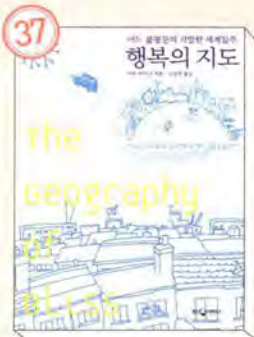
『날아가는 비둘기 똥구멍을 그리라 급쇼?』라는 독특한 제목이 일단 눈길을 끄는데, 이는 현재 디자인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디자인을 요구해 올 때를 기발하게 비유한 것으로 이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널리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자신들의 애환도 역시 남다르게 표현하는 듯하다.

책을 통해 작가는 30년 정도 출판디자인을 해온 전문 아트디렉터답게, 그간 그의 작업물과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예로 든다. 그가 직접 작업한 자동차번호판 디자인과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어한 검찰의 명함, 뉴욕 길거리의 개통 때문에 뉴욕을 사랑할 수 있게 하려고 ‘I♥NY’ 로고를 만들게 된 이야기 등등... 흔히 보아왔던 디자인이 가미된 작품들에 대해 그 작업 배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디자인과의 은밀한 만남을 제안한다.

디자인에 대한 오만방자한 자신감을 한 번쯤 품었던, 이 정도는 나도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진정으로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글자 하나, 다양한 로고, 색깔의 조화 등 이런 것들에 예전보다 훨씬 큰 관심의 눈길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주제관련도서 ▶ 디자인은 생활이다

1. 디자인의 꿈 / 시카이 나오키, 디자인하우스, 2008.
2. 디자인 발전소: 디자인 마인드 갖기 / 나건, 비주얼스토리공장출판부, 2008.
3. 디자이너란 무엇인가: 사물 장소 메시지 / 노먼 포터, 스펙터 프레스, 2008.



행복의 지도

에릭 와이너 | 웅진지식하우스 | 2008 | 483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행복·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함은경



그림이 그녀에게

곽아람 | 아트북스 | 2009 | 259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예술치료·미술·에세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이노경

평범한 여행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이다. 스스로를 불평꾼이라 칭하는 저자는 세계적인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늘 불행을 접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행복을 더욱 찾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거나 불행한 10개의 나라를 여행한다.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달랐다. 스위스는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들의 행복 비결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난한 나라 부탄은 '국민행복지수'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했다. 국민행복지수란 국민들의 행복도(또는 불행도)를 기준으로 나라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개념은 돈과 만족감,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 등에 관해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 보여준다.

소득분배 상태로 행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라고 해서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진 나라보다 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는 자살률 또한 높은 곳이 많으며,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책의 말미에서 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의 가슴에 남은 한 가지, 바로 행복은 철저히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되새긴다.

이 책을 여행서라고 생각하고 집어 든다면 실망할 것이다. 단 한 컷의 그림도, 단 한 곳의 관광지 소개도 들어가지 않은, 여행+철학+사회문화 도서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여행보다 더 그들의 국민성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다. 단순히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아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주제관련도서 ▶ 평범하지 않은 여행서

1. 기발한 세계일주 레이스 / 스티브 헬리, 중앙북스, 2009.
2. 희망을 여행하라 / 임영신·이혜영, 소나무, 2009.
3. On the Road / 박준, 넥서스books, 2006.

그림 좋아하시나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미술사 석사과정을 수료한 79년생 조선일보사 여기자가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다. 『그림이 그녀에게』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 공감'. 핑크빛 표지, 서정적인 제목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 부제였다. 동갑내기에 아직 미혼, 일하는 여성이라면 어딘가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만 같았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첫 장을 펼친 후에 나는 허전한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다. 30개의 그림이 있고, 하나하나에 작가의 에피소드와 그림에 대한 설명과 감정이입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미술 감상이 최근 트렌드임을 반영하듯 서점가에는 교양미술서적으로 넘쳐나지만, 그중에서 그림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책을 만나기 어려웠다면 바로 이 책을 추천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담긴 그림이 주로 실려 있다. 술술 읽혀 지루함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다 읽고 나면 마음까지 편안해 지는 기분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림을 보며 누군가와 공감하는 편안한 시간이 그리워지면 그녀의 그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주제관련도서 ▶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그림 에세이

1. 당신도 그림처럼 / 이주은, 앨리스, 2009.
2. 그림에 마음을 놓다 / 이주은, 앨리스, 2008.
3. 하하 미술관 / 김홍기, 미래인, 2009.

39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

정은진 | 웅진지식하우스 | 2009 | 219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아프리카 · 여성문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이승희

2008년 9월 페르피낭 포토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은 콩고 여성들의 충격적인 삶이 담긴 '콩고의 눈물(Tears in the Congo)'이라는 포토 스토리를 소개했다. 아프리카 콩고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이 담긴 사진들을 통해 그들의 아픔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아프리카는 반군, 난민, 질병, 기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성의 성폭력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민간인 학살에 묻힌 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한 달 평균 1,100건이 발생하는 유엔에서도 심각한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조차 손을 놓아버렸다는 죽음의 땅,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힘없는 여성들의 삶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여성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실들을 저자는 사진과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글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고 있다. 책속의 사진과 글은 그들이 여자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 고통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아픔을 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 불운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조차 할 수 없었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지만, 그녀들은 아직 미래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꾸다. 교회와 단체에 의해 새 삶을 찾고 있는 콩고와 르완다 여성들은 아픔이 있었던 만큼 더 강인해져 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소녀의 얼굴에서 콩고와 르완다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이 담았던 아프리카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 사진 속 이야기

1. 몽중진 / 이홍석, 바우하우스, 2009.
2. 여행자의 편지 / 박도식, 북하우스, 2009.
3. 당신의 소금사막에 비가 내리면 / 테오, 삼성출판사, 2008.

40



좋은 여행

이우일 | 시공사 | 2009 | 275p.
이용 대상 : 일반
주제 : 여행 에세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신혜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감히 '여행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이는 삶의 무게를 잠시 잊고자 여행을 꿈꾸며, 또 다른 어떤 이는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여행을 꿈꾼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여행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책이 소개된다. 바로 이우일의 『좋은 여행』이다.

『좋은 여행』은 일반 여행 책과는 많이 다르다. 일반 여행 책이 해당 지역의 특산물, 먹을거리, 숙박, 교통정보 등에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했다면, 이 책은 저자의 따뜻한 감성과 소박한 삽화 그리고 여행지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상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여행 그 자체를 즐기는 '이우일 스타일'은 '좋은 여행이란 무엇인가?'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미를 되짚게 해준다.

저자는 책에서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세 가지 시간 중에서 어떤 때가 가장 즐거우냐고 묻는다면 '여행 전'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누가 내게 묻는다면 저자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 전'은 여행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며,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 좋은 여행은 돈이 많이 드는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을 꼭 얻어 와야 하는 여행도 아니다. 진심으로 내가 여행을 즐겼고 행복해했으며 돌아왔을 때 마음에 담아 둘 수 있는 소중한 추억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여행이다.

주제관련도서 ▶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의미

1. 엽서의 그림 속을 여행하다 / 이형준, 시공사, 2005.
2. 낯선 여행자, 세상과 소통하다 / 방희중, 뉴런, 2007.
3. 삶은 여행 / 이상은, 북노마드, 2008.



이빨자국

조재도 | 실천문학사 | 2008 | 240p.
이용 대상 : 초등 5~6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노재금



빨강 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

배정오 | 토토북 | 2009 | 135p.
이용 대상 : 초등 5~6
주제 : 생명과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미영

『이빨자국』은 중학교 2학년인 승재의 일상을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잔잔히 그려내고 있다. 장애를 가진 형 승운, 자살한 형 승모, 먼저 간 아들과 장애 아들에 대한 연인으로 술을 먹으면 괴로워하는 아버지, 늘 분주하고 바쁜 어머니...

승재는 장애 가족이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고 싶어 하며 친구 만섭과 주로 생활한다. 계발활동반을 선택하면서 영화감상반에 들어간 승재는 친구가 가위바위보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함께 나와 다른 반을 기웃거린다. 그러다 마인드비전반을 만두빛어반으로 알고 덜렁 들어간다.

승재는 형으로 인한 끊임없는 집안의 분란과 어수선했던 싫기도 하지만, 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형에게 먼저 다가가보기도 하고, 싫은 내색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형에 대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어머니의 형을 향한 보살핌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마인드비전반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함께하는 친구 종민의 고모를 향한 마음과 행동을 보며 새로운 생활의 통로를 마련하려고도 한다. 형 승운으로 인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일상이 번거롭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그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종민의 이야기는 승재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소년의 성장일기 형태인 이 소설은 사회 속으로 성장해 가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 모든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해 '왜?'라는 질문을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한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러한 호기심은 점점 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과 '왜?'라는 질문에서 과학은 시작된다고 한다.

『빨강 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를 쓴 배정오 선생님도 어려서부터 생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생명과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이 책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도깨비를 등장시켜 어렵고 복잡한 세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과학 동화이다. 주인공 진석이는 친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부르는 법을 듣게 되고, 꿈속에서 레고로 도깨비 형상을 만든 후 주문을 외워 빨강 도깨비를 만난다.

첫 번째 단원에서 진석이는 세포의 발견과 세포의 크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어떻게 다른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빨강 도깨비와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알아가게 된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탄생의 비밀부터 만능 재주꾼인 즐기세포, 대대손손 물려받는 염색체와 세포 속에 숨어있는 유전의 비밀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생명과학은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시대로 만들면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문이라고 한다. 도깨비처럼 방망이로 똑딱하면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세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미래 생명과학의 주인공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 청소년을 위한 소설

1. 완득이 / 김려령, 창비사, 2008.
2. 영두의 우연한 현실 / 이현, 사계절, 2009.
3. 19세 / 이순원, 세계사, 2009.

주제관련도서 ▶ 재미있는 과학 동화

1. 과학블로그 1, 2 / 과학노리, 킨더주니어, 2009.
2. 세상의 모든 펭귄 이야기 / 김황, 창비, 2009.
3. 근질근질 마생물 구석구석 현미경 / 닉 아놀드, 김영사주니어, 2009.



통조림에서 나온 소인들

정 위엔지에 | 웅진닷컴 | 2002 | 208p.
이용 대상 : 초등 3~4
주제 : 이해와 존중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이아란

몇 해 전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신간도서로 들어온 책 중 기발한 제목과 유쾌해 보이는 삽화에 이끌려 읽은 책. 제목만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재미있는 책이었고 아이들의 독서 수준에 상관없이 추천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책 중 한 권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루시시와 피피루라는 쌍둥이 남매가 등장한다. 동생인 루시시는 학교에서 일등만 하는 우등생이자 모범생이고 오빠인 피피루는 만날 귀찮은 듣는 타고난 장난꾸러기에 학교에서 유명한 열등생이다. 루시시는 그런 오빠를 창피하다고 업신여긴다. 어느 날 루시시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통조림을 뒀는데 통조림 속에 있어야 할 고기는 없고(고기에서 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난개비만한 다섯 명의 소인들이 들어있다.

피피루가 데려오는 작은 동물들을 내다 버렸던 부모님으로부터 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루시시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고, 루시시의 달라진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과 선생님의 감시에 반항심이 생긴 루시시 역시 오빠와 함께 열등생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루시시는 편견으로 평가당하는 열등생 오빠를 이해하게 되고 남매는 소인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합친다. 그리고 똑똑하고 다양한 재주를 가진 소인들 덕분에 피피루 또한 기말고사에서 일등을 하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열등생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통조림에서 소인들이 나타난다는 상상력 넘치는 설정과 흥미진진한 사건은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국의 교육환경과 편견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처럼 공감할 것이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과 말썽꾸러기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권하고 싶다.

주제관련도서 ▶ 아이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1. 나쁜 어린이표 / 황선미, 웅진주니어, 1999.
2. 엄마와의 전쟁 / 안 방탈, 큰북작은북, 2009.
3. 모범생은 이제 싫어 / 플로랑스 세이보스, 시공주니어, 2008.



나불나불 말주머니

김소연 | 파랑새 | 2009 | 159p.
이용 대상 : 초등 3~4
주제 : 옛날이야기 보따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산혜

어린 시절 명절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내려가 밤새도록 듣던 옛날이야기였다. 할머니께선 손자들의 끊임없는 주문에도 고떡없이 이야기보따리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어 구수하게 들려주곤 하셨다. 할머니께서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이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마치 다시 살아 돌아온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드는 책을 발견했다. 바로 『나불나불 말주머니』란 책이다. 『나불나불 말주머니』는 총 일곱 편의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기존에 접했던 내용이 아닌 김소연 작가에 의해 새로이 태어난 창작동화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숨결과 정서를 전달하고 덩으로 생활 속의 지혜까지 가르쳐준다는 점이다. 또한 구수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우리 민족의 '정(情)'까지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자주 해주지도 않거니와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을 틈도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런 책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옛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 우리와 같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책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우리 민족의 옛 정서와 부모가 깨우쳐주고 싶은 삶의 가치관까지 즐겁게 접하게 해준다.

주제관련도서 ▶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

1. 옛날이야기 / 미우라 시온, 들녘, 2009.
2. 가슴 뭉클한 옛날이야기 / 김장성, 사계절, 2008.
3. 애들아! 옛날에 옛날에 / 신정민, 길벗스쿨, 2006.

45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용택 | 창작과비평사 | 2008 | 93p.
이용 대상 : 초등 4~6
주제 : 자연·일상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팽택분관 서부남

46



도시락 안 싸간 날

고정욱 | 여름숲 | 2008 | 118p.
이용 대상 : 초등 1~2
주제 : 사랑·배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정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어릴 적 조그마한 시골학교를 다녔던 나에게, 이 책은 추억 여행의 기본을 안겨줬다. 시를 읽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친구들과 산에 올라, 꽃을 꺾고 다람쥐를 쫓아다녔던 일, 공놀이를 하며 티격태격했던 일 등 추억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지금과는 다른 나를 만나며, 정겨운 미소를 지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는 시인이자 교사인 김용택이 40년 동안 다닌 학교와 시골동네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1부는 지렁이, 달팽이 등 아이들이 시골 생활에서 발견한 생명 이야기를 2부와 4부에는 시골 아이들의 일상과 외로움을, 그리고 3부와 5부에는 시골 아이들의 일상을 자연 속에 투영한 시들을 담았다.

시인과 아이들은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다. 흙길과 조그마한 시골집, 작은 물고기들이 노니는 개울물, 스스로 자라는 풀꽃에서 펼쳐지는 시인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정겹다. 또 순수한 그림은 읽는 이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한다.

이 동시집은 이러한 시골의 순수한 동시 이야기와 함께 도시의 아이들만큼이나 외로운 농촌 아이들의 어두운 현실을 담았다. 시인은 해가 질 때까지 동네 앞 찾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밤을 파는 수현이와, 부모가 없는 할머니 집에서 이틀 동안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세희를 통해 시골 아이들의 외로움, 쓸쓸함, 아픔을 함께 노래했다. 이러한 양면성은 독자를 공감과 연민의 세계로 이끈다.

이 책은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봄’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고, 요즈음의 아이들에게는 시골의 향취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선물한다.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갈 때 항상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도시락이었다. 어쩌면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책가방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점심시간이면 둘러앉아 도시락 반찬을 나눠먹고, 가끔씩은 각자의 반찬을 다 함께 모아 썩썩 비벼서 먹기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이면 함께 모여 몰래 도시락을 먹기도 했었다. 그때 잘 몰랐는데 이 책에 실린 여러 단편 동화 중 첫 번째 이야기인 『도시락 안 싸간 날』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울 수 없는 사랑이나 정, 나눔, 배려, 이러한 것들 말이다.

송이는 반에서 특별히 도시락을 싸와 함께 먹기로 한 날,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실수로 그만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하게 된다. 친구들이 꺼내 놓는 맛있는 도시락에 송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이를 눈치 챈 선생님은 아이들이 싸온 밥과 반찬을 조금씩 모아 송이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준다. 그날 반 친구들은 서로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모두 다 배부르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고, 송이는 오늘 받은 사랑의 도시락을 다음에는 다른 친구에게 꼭 전해주겠다고 다짐한다.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각각의 단편 동화 뒤에는 ‘생각해 볼까요’라는 제목 아래 동화 속의 교훈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아직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따뜻한 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관련도서 ▶ 자연을 담은 동시집

1. 콩 너는 죽었다 / 김용택, 실천문학사, 2007.
2.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 / 서창우 외, 푸른숲, 2007.
3. 누가 더 놀랐을까 / 도종환, 실천문학사, 2008.

주제관련도서 ▶ 고정욱 작가의 새로 나온 동화책

1. 선생님 나만 믿어요 / 고정욱, 글담어린이, 2009.
2. 아들이 뿔났다 / 고정욱, 와이즈아이, 2009.



한걸음만 다가서 보

이반 서덜 | 와이즈아이 | 2008 | 359p.
 이용 대상 : 초등 5~6
 주제 : 성장소설 · 소통 · 이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노보형

호주 작가 최초로 1971년 아동문학상인 카네기상을 받은 작품이다. 작가의 어릴 적 경험에 픽션을 가미해 썼다는 작품으로 보아 작가는 아마도 어릴 적 경험이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싫어한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과 되돌아보게 되니 말이다.

이 책은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다. 아동 도서라 하기엔 주제는 다소 무겁고 분량은 300페이지가 넘는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사춘기를 앞둔, 혹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과는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주인공 조쉬는 그토록 원하던 라이언 크릭 마을의 클라라 고모할머니 댁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도착하는 순간 자신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클라라 고모할머니의 말씨는 잔소리만 듣고, 동네 아이들과도 계속 마찰만 생기는 등 이 마을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조쉬는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춘기 소년의 감성에는 이곳은 전혀 딴 세상이고,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이 입기만 할 뿐이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주인공 조쉬의 생활을 힘들게만 하는데, 과연 조쉬는 클라라 고모할머니 댁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친구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어른이라면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살며시 떠오르게 할 이 작품에 한 번 발을 들여 놓아보자. 삶의 나침반과 추억이 펼쳐질 테니까.

주제관련도서 ▶ 이반 서덜의 다른 작품을 만나요!

1. 여우굴 / 이반 서덜, 책과콩나무, 2009.
2. 태풍을 이긴 아이들 / 이반 서덜, 와이즈아이, 2009.
3. 불타는 애시로우 / 이반 서덜, 을파소, 2009.



누가 내 도시락을 훔쳐갔을까?

예안더 | 해와나무 | 2008 | 38p.
 이용 대상 : 초등 1~2
 주제 : 성장동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안선영

테이블보를 들춰보기도 하고 바닥 틈새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머리를 굴적이며 무엇인가를 찾는 아이의 모습 위로 '누가 내 도시락을 훔쳐 갔을까?'라는 제목이 보인다. 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라진 도시락인 것 같다. 그럼 그 도시락을 도대체 누가 훔쳐간 것일까? 이 책은 표지만으로도 책의 내용을 추측하고 범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면서 보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학교에 원숭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떠돌던 어느 날의 점심시간, 샤오웨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단에 가져다 놓은 도시락을 가지러 갔지만 도시락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사라진 샤오웨이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혹시 원숭이가 훔쳐간 게 아닐까? 샤오웨이의 도시락에는 바나나가 그려져 있어 원숭이가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아이들은 다 같이 원숭이 잡기에 나선다. 결국 119소방대까지 출동해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숨겨두었던 반전의 카드를 드러낸다. 원숭이가 훔쳐간 줄 알았던 샤오웨이의 도시락은 아이들이 모두 잠든 쉬는 시간, 샤오웨이의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된다. 이 사태를 샤오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책은 작가 예안더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글에서는 다른 설명이 전혀 없이 사건이 단도직입적으로 시작되지만 첫 장의 학교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 하나만으로 충분히 작품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사라졌던 도시락을 발견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글에서는 짧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 해주고 있지만 책을 보는 이들은 그림을 통해 그 이후 샤오웨이의 행동을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시골학교에서 일어난 도시락 분실 소동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따뜻한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책은 사라졌던 도시락을 발견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주제관련도서 ▶ 이웃 나라 대만의 그림책들

1. 내 자전거 / 예안더, 예림당, 2007.
2. 우리집은 거북이동물원 / 통지아, 보물상자, 2009.
3. 우리 숲을 내버려 뒀 / 연수뉴, 미세기, 2009.



뭐든지 파는 아저씨

고정욱 | 영림카드널 | 2009 | 126p.
이용 대상 : 초등 4~5
주제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마지막 수수께끼

임정자 | 해외나무 | 2009 | 113p.
이용 대상 : 초등 5~6
주제 : 민주주의·권력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김지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 자체가 삶의 큰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다. 그런데 이런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조직이나 집단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있다.

주인공 버리는 학교 앞에서 만난 일명 '뭐든지 파는 아저씨'를 통해 앵벌이 조직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다. 아저씨를 놀리며 흥을 보다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버리는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 아저씨를 따라 한 건물 지하실로 들어선다. 그곳에서 험상궂은 사내 두 명과 대머섯 명의 장애인들을 목격한 버리는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출하기에 나선다. 버리와 아버지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내고 결국 앵벌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에 이른다. 버리 아버지에게는 장애인 형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 가족의 동의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그곳에서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형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했던 버리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행동에 회한을 느꼈고, 그러기에 '뭐든지 파는 아저씨'를 더욱 각별한 애정으로 대했다. 장애인 시설에서의 삶이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으며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형의 죽음의 원인이었음을 잘 아는 버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책 서문에서 작가는 장애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이 교육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약자와 강자, 계층과 계층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고 공생할 수 있느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주제관련도서 ▶ 더불어 사는 사회

1. 내 친구는 시각장애인 /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주니어김영사, 2005.
2. 우리가 달라도 /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6.
3. 난 너와 친구하고 싶어 / 고정욱, 느낌표교육, 2006.

『마지막 수수께끼』는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당글공주』 등을 쓴 임정자 작가가 집필한 책이다. 임정자 작가는 흥미롭고 독특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며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화를 쓴다. 그녀는 열 편 이상의 책을 썼으며 이 책은 열한 번째 작품이다.

옛이야기 형식의 이 책은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또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삽화는 옛이야기의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열두 강을 건너고 열두 산을 넘어가면 '신성한 검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는 신성한 산에 사는 '산왕'이라는 커다란 호랑이가 있는데, 산왕에게서 '신검'을 얻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불라'라는 자가 올바르게 않은 방법으로 산왕에게서 신검을 빼앗아오고, 어느 날 신검이 사라지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불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잡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세파미'가 신검을 찾기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국가의 권력'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딸'에 대한 내용이 주축이다. 효심 깊은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내용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국가 권력이라고 말한다. '국가 권력의 진정한 소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산왕이 내는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국가의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책이다.

주제관련도서 ▶ 권력이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1. 피사의 피자임금님 / 게르하르트 글뤽, 교학사, 2005.
2. 화장이면 다야? / 함영연, 시공사, 2005.
3. 우리들의 일그린 영웅 / 이문열, 휴이님, 2006.

51



책꽃이에 가지런히 책

재미난책보 | 어린이아현 | 2008 | 32p.
이용 대상 : 유아
주제 : 책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김혜정

1.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
 2.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 책의 사전적 정의이다. 매일매일 책을 접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이 "책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사전에 나온 대로 말해준다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책을 읽고 싶은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

『책꽃이에 가지런히 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따뜻한 그림책과 시리즈 중 하나로 '책과'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과 달리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린 세밀화로 책의 역사, 만드는 방법, 종류, 이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옆에서 자상하게 이야기하듯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그림과 어울리는 알맞은 내용의 글은 다시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자주 읽고 싶게 한다. 책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점 역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과 만나기 위해서지만 한번쯤 책 자신을 말하는 책을 아이들과 읽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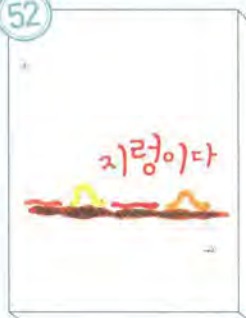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내 책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썼다고 해서 내 책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내가 읽는 책이 내 책이에요.' - 본문 중



주제관련도서 ▶ 따뜻한 그림책과 시리즈

1. 쿵쿵 쿵쿵 드르렁 잠 / 재미난책보, 어린이아현, 2008.
2. 매일 세 번 꼭꼭 밥 / 재미난책보, 어린이아현, 2008.
3.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 / 재미난책보, 어린이아현, 2008.

52



지렁이다

차보금 | 사파리 | 2008 | 28p.
이용 대상 : 유아
주제 : 환경보호·환경지킴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명희

안녕? 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좋아, 나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게임이야. 신중하게 들어줘. 알았지?

키 : 10cm

사는 곳 : 축축한 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아.

특징 : 축축한 피부, 그 비결은 바로 몸에서 나오는 점액이야.

좋아하는 온도 : 15~25℃ 추운 겨울에는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 느릿느릿 움직여.

싫어하는 동물 : 두더지, 새, 너구리, 개구리, 으 무서워! 이런 동물들을 피하다가 꼬리가 잘릴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금세 또 자라거든.

좋아하는 음식 : 떨어진 이파리, 과일 껍질, 밥, 국수, 녹차 찌꺼기 등 땅 속에서 분해될 수 있는 건 뭐든지 좋아. 배고플 땐 종이까지도 야금야금. 하지만 농약이 묻은 껍질은 싫어.

자랑거리 : 영양이 듬뿍 든 내 똥.

남기고 싶은 말 : 난 나비처럼 날지도 못하고, 얼룩말처럼 뛰지도 못하고, 고래처럼 헤엄도 못 치고, 카멜레온처럼 색깔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을 해. 그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야.

난 누구일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해. 비오는 날이면 나를 보고 징그럽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뭇가지로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어. 요즘은 내 똥을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나를 키우는 사람들도 생겨났지.

나는 누가 뭐래도 환경지킴이 1호야. 궁금하지? 그럼 책속에서 만나. 꼬물꼬물 기어가는 내 모습에 반하게 될거야!

주제관련도서 ▶ 지렁이에 대해 알아봐요

1. 지렁이가 흙똥을 누었어 / 이성실, 다섯수레, 2009.
2. 꾸물꾸물 지렁이를 키워봐 / 손호경, 대교출판, 2008.

53



엄마가 된다는 것

최은영 | 푸른책들 | 2009 | 165p.
이용 대상 : 초등 4~6
주제 : 엄마에 대한 편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채성희

54



용구 삼촌

권정생 | 산하 | 2009 | 40p.
이용 대상 : 초등 3~4
주제 : 가족의 소중함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지연

엄마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인 반면, 어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두려움, 원하지 않는 실수가 될지도 모른다. 엄마라는 이름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아이에게 많은 희생과 관심을 기울일 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요 근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미성년자가 무책임하게 아기를 낳고 버렸다는 기사들을 종종 본다.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거나 혹은 오히려 당당하게 문제에 맞서 싸운다. 일차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곳곳이 살아가는 모습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인 미진이는 전에 살던 집보다 빛도 더 잘 들어오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온다.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다.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이다. 미진이는 친구들 엄마보다 훨씬 젊은 엄마와 살고 있고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들리고 싶지 않아 자꾸 숨는다. 그러던 미진이가 '대단한 아빠'가 있는 나경이를 만나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안으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 엄마가 부끄럽기만 했던 미진이는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고 세상의 편견 앞에서도 자신을 지킨 엄마가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미혼모, 가정폭력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엄마와 딸이 소통해가는 과정을 통해 잔잔히 풀어내고 있다.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갖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해질녘이 되어도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른 살이 넘었지만 용구 삼촌은 모든 게 서툴다. 건넌집 다섯 살배기 영미보다도 용구 삼촌은 더 어린애 같은 바보다. 그런 삼촌이 언제부터인지 암소 누렁이를 데리고 못골산으로 풀을 뜯기러 다녔고 우리 집 식구뿐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삼촌을 칭찬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삼촌은 거여코 바보로 돌아간 것이다. 아빠와 경희 누나 그리고 내가 못독을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삼촌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해진 아빠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삼촌을 찾아 나섰다. 아무리 찾아도 삼촌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바보여서 그런지, 삼촌은 새처럼 깨끗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특별한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 조카들에게 먼저 나눠 주고 자기는 나머지만 먹는다. 기워진 바지에 까만 고무신만 신고 다니지만 삼촌은 항상 웃었다. 바보 삼촌은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따뜻한 식구다. 멀리 삼촌을 찾았다는 소리가 들려 죽을힘을 다해 달려갔다. 회갈색 산토끼를 안고 삼촌은 평화롭게 잠이 들어 있다. 우리들이 애쓰는 줄도 모르고 잠을 자다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삼촌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흐득흐득 흐느껴 울고 말았다.

항상 내 옆에, 언제까지나 있어 줄 것이라 믿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곧잘 잊고 사는 것 같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랑하는 가족의 격려와 미소만으로도 가슴 훈훈한 위로를 받는데도 말이다. 짧은 글이지만 권정생 선생님의 특유의 긴 여운이 남는 가슴 따뜻한 책이다.



주제관련도서 ▶ 엄마라는 이름으로

1. 엄마 사랑해 / 박신식, 홍, 2003.
2. 안녕히 계세요 / 남찬숙, 우리교육, 2007.
3. 별을 보내다 / 대한사회복지회, 리즈앤북, 2009.

주제관련도서 ▶ 소중한 가족애를 일깨워주는 동화

1.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족 사랑동화 / 안선모, 흰돌, 2009.
2. 우리 가족 최고의 식사 / 신디위 마고나, 샘터사, 2008.
3. 복실이네 가족사진 / 노경실, 산하, 2006.



마음을 훔친 도둑

우봉규 | 주니어김영사 | 2009 | 107p.
이용 대상 : 초등 3~6
주제 : 불교동화·지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강수연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의 병은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기도 한다. 스스로가 키우는 마음의 병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산내리 마을에 사는 어린 고봉스님의 별명은 웅이스님이다. 나무에 단단히 박힌 웅이처럼 굳세고 똑똑하며, 동글동글한 모양새가 웅이라는 별명만큼 제격인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였다 동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던 웅이스님은 어느 날부터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은 채 상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바로 마을에 찾아든 도둑 때문이다. 마치 한 식구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씩이며 보리 등 사라지는 곡식으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집마다 담장과 대문이 서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수수밭에서 한수와 마주친 웅이스님은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던 한수의 부탁에 그 비밀을 지켜주게 된다. 하지만 매번 마을에 절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웅이스님은 한수를 의심하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커진 의심의 골은 결국 남매만 살던 한수와 달래를 마을에서 떠나게 만든다.

"얼굴엔 인정이 하나도 없고, 눈은 양쪽으로 찢어져서 날카롭기 짝이 없다. 이제 너의 친구, 누구도 너를 상대하지 않을 게다. … 중략 … 너는 정말로 용서할 줄도 모르고, 정말로 약속을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불쌍한 달래가 저렇게 마을 사람들 몰래 뒷길로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노스님의 말은 웅이스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지금의 얼굴을 만들었다며 화를 내신 노스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진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도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자비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작은 자비가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는 참병이 되기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심과 편견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1. 어린이를 위한 정직 / 우봉규, 위즈덤하우스, 2009.
2. 365일 희망찬 어린이를 위한 긍정의 한줄 / 김현태, 베스테디, 2009.
3. 나누면 커지는 마음 배려 / 서지원, 좋은책어린이, 2009.



하늘의 법칙에 도전한 북학 사상가 홍대용

고진숙 | 아이세움 | 2008 | 164p.
이용 대상 : 초등 5~6
주제 : 인물·역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이아란

'하늘은 둥글고 움직이며, 땅은 네모나고 조용하다 … 중략 … 땅이 그 가운데 있고 하늘이 땅을 싸고 있으니 마치 알껍데기가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다(46p.)'

15세기 말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18세기 조선에서 지구가 여전히 평평한 땅이었다. 17세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이후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대두되고, 조선이 작은 중국이라는 '중화주의'의 자부심, 그리고 성리학만이 모든 만물의 이치라 여기며 예와 명분만을 중시하던 18세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홍대용은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서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이었지만 스승 김원행을 통해 서양 과학기술과 천문학을 접하게 되고 이는 명문가 청년 홍대용의 앞길을 변화시킨다.

홍대용은 명분에 치우친 성리학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부국강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접 혼천의를 제작하여 '농수관'이라는 최초의 개인 천문대를 탄생시킨다. 또한 베이징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선진 문물을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전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하늘의 평등한 법칙을 연구하여 인간의 평등함을 증명하고자 한 홍대용의 노력은 비로소 정조 때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책은 실학자 홍대용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지만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성리학의 한계와 양반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된 실학의 등장배경과 박지원, 유득공, 박제가와 같은 중상주의 실학자들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본문과 관련된 배경설명과 삽화도 충실하여 홍대용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조선 후기 새로운 변화의 바람 실학

1. 백성이 잘사는 나라를 꿈꾼 실학자 정약용 / 양태석, 해와나무, 2006.
2. 성호사설 / 김남길, 파란자전거, 2006.
3. 연암 박지원 / 배봉기, 산하, 2004.

대한민국 잘나가는 기업의 경영전략 독서경영

글 • 유현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팽택분관 사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독서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독서활동이 개인적인 지식 습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후 활동이 경영전략과 실무에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혁신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에 기업에서의 전사적인 독서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개인과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불황 타개책으로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며 독서경영에 대하여 살펴보자.



독서경영의 시작

우리나라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독서경영의 역사 또한 길지 않다. 다만, 1980년대 중반에 중견기업 이랜드에서 독서경영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한 CEO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경영이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유래된 독서경영은 독서활동과 독후활동을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는 경영기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원천인 지식은 학습을 통하여 습득되는데, 기업체가 학습조직이 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수단으로 하여 지식을 습득하되 단지 지식 습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독서토론이나 독후감 작성활동 등의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통하여 개인의 자산을

조직 내에 축적, 공유하고 전파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적자산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독서경영의 운영

독서경영을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독서 행위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정보, 아이디어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공유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 통상 채택하고 있는 독서경영의 운영 형태는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후감이나 소논문 형식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독서 후 성과가 기록된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는 테스트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책의 내용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책에서 얻은 지식과 회사의 업무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하는 주관식 형태로 이루어질 때, 일상 업무와 경

영 활동의 개선에 적용할 아이디어와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론방식은 도서를 깊이 있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과 동시에 수평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독서경영 사례

● 이랜드

이랜드는 독서경영의 선두에 있는 기업으로서 '직장은 인생의 학교다'라는 경영이념으로 1985년부터 독서경영을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이룩하여 지식경영 원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랜드는 직원 학습에 중요한 도서를 필독 추천도서목록으로 정리 배포하고, 임원 회의에서는 매주 1권씩, 중간관리자 학습팀에서는 격주 3권씩 선정 도서를 심층 학습하고 있다. 여기에 부서나 팀 단위의 '독서 MT', '독서토론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입사전형, 신입사원교육과정, 승진심사 등의 각종 인사정책에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 동양기전

조병호 회장은 900여 명의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1년에 필독도서를 포함하여 적어도 4권의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독서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더불어 회사는 사업장별로 '독서지도사'를 고용하여 사원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승진 시 독서 논문과 독후감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독서 항목은 예외 없는 심사조항이어서 입사 지원자가 면접 전에 회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이 회사가 지켜온 전통 중 하나이다.

● 우림건설

심영섭 회장이 주축이 되어 '독서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케이스다. 직원들은 CEO와 임직원들로부터 추천된 필독서를 읽고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회사는 이를 월례회의에 발표, 시상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한다. 한편 회사는 공사현장 근무 직원들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책을 읽은 이후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 오리온

2007년부터 경영자 북 클럽, 핵심리더 북 클럽 등 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온 북클럽 'OBC(ORION Book Club)'을 운영하고 있다. 격월로 진행되는 OBC 모임에서는 한 번은 전사공통 도서를,



또 한 번은 조별로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전사공통 도서는 경영과 조직분야, 조별 자유 선정도서는 자기계발·인문·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팀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을 20여 명씩 10개 조로 나눠 독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독서경영의 효과 및 전망

독서경영은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냄으로써 노사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토론문화 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창의적인 사고는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 바탕이 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의 밑거름이 된다.

지식기반사회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으로 독서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독서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즉, 직급 위주의 권위적인 기업문화의 벽을 허물고,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제성과 자율성이 적절히 감안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독서경영의 실천이 아직은 발전하여 나아가는 시기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쫓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국내에서 시작된 토종 경영기법인 독서경영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박희준 외, 『독서경영』, 위즈덤하우스, 2006.

정진규, 독서활동을 통한 기업의 경영전략 방안 연구, 전주전북대 경영대학원, 2005.

방누수, 『생존독서력』, 일리언하우스, 2009.

이코노믹리뷰, '독서경영으로 불황 뚫는다', 2009. 1. 9.

해럴드경제, 「독서경영시대」, 『핵심은 변화와 혁신』, 2008. 6. 2.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moosim86>

도서관 ‘방과 후 학교’ 수업 이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글 · 강수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설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느라 바쁘다지요? 그러나 사설 학원 대신 도서관 방과 후 학교를 몇 탕씩(?) 뛰는 친구가 있습니다. 민재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용초등학교 3학년 김민재 어린이의 방과 후 활동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Go! Go!



Q1 민재와 함께 저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A 2008년 가을부터 민재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잠시 연무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이실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동화를 들려주면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종의 그림일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민재가 워낙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같은 활동적인 수업을 좋아하는지라 무척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Q2 민재가 도서관 방과 후 학교 수업 시간에 쓴 그림일기를 보면 상황 묘사나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던데, 특별히 독

서교육을 시키신 게
있나요? 그리고 민재
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면이 있다
면 말씀해 주세요.



A 특별히 독서교육을
따로 하거나 학원을 보낸

적은 없어요. 민재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그날 배운 내용을 저한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처음
엔 들어주는 게 귀찮기도 해서 귀담아듣지 않았었는데, 어
느 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
우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너무 자세
하게 설명하고 묘사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젠 집
에 오면 항상 저나 제 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의 전달
교육(?)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아마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강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교육 효과가 나타
나는 것 같아요.

Q3 민재가 상반기에도 2개 강좌나 듣고 하반기에는 독서
회까지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민재가 특별히 관심 있고
재미있어한 강좌는 무엇인가요?

A '나도 화가처럼'과 '체험! 역사 교실' 두 수업 모두 민
재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도 화가처럼'은 사설학원에서
처럼 단순히 주제를 주고 그림만 그리라고 한다거나 모델이
되는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화가의
그림 사조와 경향을 충분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나서 그 화
가들의 그림 기법을 그대로 배워보는 정말 알찬 수업이었습
니다. 민재가 한번은 박수근 화가에 대해서 배우고는 '나무'
라는 작품을 직접 그려왔었어요. 박수근 화가의 그 투박한
물감 채색법을 그대로 살려 나무를 그려왔는데 정말 신기하

게도 그 느낌을 잘 살려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단단한 이론에 살아있는 실기가 더해진 정말 훌륭한 강좌였
던 것 같아요. '체험! 역사 교실' 역시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 움집이라며 본인이 만든
찰흙을 들고 와서는 구석기 시대 생활상 이모저모를 설명하
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민재를 통해 구석기 시대 생활 문
화를 새롭게 배웠답니다.

Q4 일반 사설 학원과 비교하여 저희 도서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 소감 및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이 얼마나 열
심히 하실까 하고 회의적이었어요. 전문성이나 신뢰도에 대
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방식과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태도에 정말 감동받았어
요. 아이들 하나하나의 수업 태도와 장단점을 체크하면서 보
완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지금은 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떤 사설 학원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반기에도 강좌를 신청하고 싶었는
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많이 개설해서 도서관
수업 시간과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재는 못
들게 되었지만, 대신 민재 동생이 도서관 방과 후 수업을 열
심히 듣고 있습니다.

민재는 하반기 방과 후 수업은 신청
하지 못했지만 도서관의 「해맑은
독서회」에는 월 2회 참석하고 있
어요. 그 독서회도 민재에겐 매
우 유익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
들어 주시는 바람에 엄마인 저
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
할 뿐이에요.



2009년 수남초등학교 도서관

한여름 밤 가족 독서캠프 이야기 '전래동화야 놀자'

글 · 이현주 김포 수남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수남초등학교 도서관은 김포시 대곶면에 소재한 6학급의 작은 학교도서관으로 2006년 9월 신축하여 개관하였다. 단독 건물에 최신식 정보화 장비를 갖춘 김포에서도 유일한 정보화 도서관이며, 올해 5월 말 새롭게 리모델링하였다. 학생들에게 배움의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낳은 도서관으로 가보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독서캠프

본교의 도서관은 학생들은 물론 문화적 혜택이 많지 않은 이웃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으며 지식,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캠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독서에 대해 생각하고 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래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옛 문화와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조상의 지혜와 삶을 배우고 체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독서캠프에는 가능한 많은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체제를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참가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부모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함은 물론 테마가 있는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독서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많은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20일~21일(2일간) 진행된 독서캠프에는 10가족(50명)이

참여하였는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작년 13가족(60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전교생이 8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과 부모님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었다. 독서캠프는 세 개 마당으로 구분하여 '전래동화 친해지기',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래동화랑 놀자' 로 진행하였다.

▶ 독서캠프 일정표(2009년 7월 20일, 21일)

일정	활 동 내 용		
	순서	활동 주제	세부 활동 내용
첫째날	첫째 마당 '전래동화 친해지기'		
	1	전래동화 이야기 그림 그리기	① 전래동화 이야기 하나를 뽑는다. ② 밑그림을 그린다. ③ 포스터물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 ④ 도서관 외벽에 설치한다.
	2	전래동화 캐릭터로 옷 만들기	① 구상하기(전래동화 속 주인공) ② 연필로 스케치하기 ③ 염색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④ 다림질하고 말리기
	3	전래동화 속 놀이하기	▶ 물놀이(전통놀이 운동회) ① 편을 가른다. ② 마주 보고 무조건 쏘기 ③ 공간을 그려 넣고 쫓아가서 쏘기 ④ 가족끼리 서로 적이 되어 쏘기 ⑤ 부모 대 아이들 ▶ 물풍선 터트리기
	둘째 마당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가기'		
	4	집 만들기	① 준비해 온 텐트 치기 ② 각자 집에 이름을 붙인다. 전래동화 속 집 이름을 짓는다.
	5	이야기 부채 만들기 (30분)	① 빈 부채 준비 ② 붓과 먹으로 이야기 부채 만들기 (그림: 전래동화 속 장면 / 글: 장면에 대한 시 쓰기)
	6	책도장 만들기 (30분)	① 도장 디자인하기 예) 책속에 길이 있다. ② 도장 파기 ③ 도장 찍어보기
	7	응모하기	① 활동이 빨리 끝난 가족에게 독서퀴즈 응모권을 나눠주고 추천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인당 한 장씩 나눠준다.
	8	전래동화 퀴즈 추천	① 교장, 교감, 도서관 사서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추천함에 있는 응모권을 추천한다. ② 당선된 가족에게 시상한다. ③ 캠프에 참가한 가장 어린 아이 3명에게 추천기회를 제공하여 아차상을 시상한다.
	9	외국 전래동화 영화감상	▶ 외국의 유명한 전래동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상영
둘째날	10	엄마가 들려주는 귀신 이야기	텐트 속에서 귀신 이야기를 한다.
	셋째 마당 '전래동화랑 놀자'		
	1	전래동화 골든벨	① 문제를 제출한다. ② 문제를 맞춘 사람은 계속 남는다. ③ 패자 부활전 ④ 최종 1인에게 수상한다.
	2	점핑클리어로 만나는 옛 이야기	▶ '토끼와 거북이'의 한 장면을 재연해 본다.

첫째 마당

‘전래동화 친해지기’

● 전래동화 이야기 그림 그리기

가족끼리 전래동화 속 한 장면을 그려보는 프로그램. 가족마다 각각의 전래동화를 정해주어 책의 줄거리나 재미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고 밑그림을 그려 맡은 부분을 색칠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앉아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거나 주인공이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래동화 캐릭터로 옷 만들기

가족들 간에 단결력과 소속감을 갖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거나 가족끼리 같은 전래동화의 주인공을 그려 세상의 단 하나뿐인 가족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독서캠프 기간 동안 입고 활동하였다.

● 전래동화 속 놀이하기

동화 속의 도깨비들을 그린 캐릭터 판에 얼굴을 넣고 물풍선을 던지면서 하는 놀이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놀이를 통한 민속놀이 프로그램이었다.

둘째 마당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가기’

● 이야기 부채 만들기

합죽선에 전래동화 속의 인상 깊은 문구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 더운 여름에 필수품인 부채를 만드는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 부채를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전래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책도장 만들기

독서와 관련된 문구나 자신의 이름을 조각칼로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서 나만의 하나뿐인 책도장을 만들었다.

● 외국 전래동화 영화감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 중 하나를 선정하여 영화로 감상하였다. 다른 나라의 풍습이나 관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차이점도 비교해 보고 교훈적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엄마가 들려주는 귀신 이야기

엄마가 텐트 안에서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들으면서, 엄마의 이야기 솜씨도 살짝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셋째 마당

‘전래동화랑 놀자’

● 전래동화 골든벨

전래동화 다섯 권을 선정하여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족 간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가족 모두 참여하여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었다.

● 점핑클레이로 만나는 옛 이야기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의 한 장면을 재연하였다. 토끼는 나무 그늘에서 자고 거북이는 열심히 경주하는 장면을 점핑클레이로 만들어 가족 간의 상상력으로 주위 환경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독서캠프의 운영 효과

아이들이 독서를 재미있어하고 도서관을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독서캠프에서는 다양한 놀이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테마가 있는 독서캠프를 통해 독서활동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였다. 1박 2일 동안 아이와 부모가 함께한 이번 독서캠프는 기존의 독서캠프에서 기대되는 효과뿐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독서교육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독서캠프를 통해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도서관이 한 발짝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었기를 기대해 본다.



▶ 테마가 있는 한여름밤 가족독서캠프 이야기



전래동화 퀴즈추첨



전래동화 그림세상



우리가족 '찰칵'



우와! 대형 걸개 그림 완성



신나는 물놀이 세상



나만의 옷을 만들자!



선생님 도깨비다!



부채그림 그리기 설명 중



아빠의 집중력은 얼마?



내가 판 독서도장이예요



전래동화 도전 골든벨



시원한 물놀이 시간



마이 시스터즈 키퍼

글 · 김미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사서

My Sister's Keeper

●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2004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윤리적인 이슈로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알렉스 어워드상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2009년 가을, 〈노트북〉의 닉 카사베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여배우 카메론 디아즈와 〈싸인〉, 〈님스 아일랜드〉의 아역배우인 에비게일 브레슬린이 주연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쌍둥이별』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는 이 소설은 영화 개봉이 결정된 후에 책 서명이 원서이자 영화 제목인 My sister's keeper를 그대로 반영하여 『마이 시스터즈 키퍼 : 쌍둥이별』로 바뀌어 출판되었다.

●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그랬다. 파란 하늘을 떠돌던 나를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에 데려왔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사실이 아닌란 걸 깨달았다. 나를 만든 건 과학이다.”

주인공인 안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목소리로 영화는 시작된다.

보통의 아이들은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데 비

해 안나는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아이이다. 즉, 안나는 백혈병에 걸린 언니의 치료를 위해 유전자를 일치시킨 이른바 맞춤형 아기인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언니의 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제대혈, 골수, 백혈구 등을 본 의 아니게 제공해 온 안나는 서서히 자신의 삶과 생활 전체를 저당 잡힌다. 그러던 중 안나는 언니에게 신장마저 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신장을 제공해준다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신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나는 결국 ‘의료해방’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의료해방이라는 것은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도의적으로 옳은 결정을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의료결정권에 관한 권리이다. 언니와 동생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안나의 삶과 언니의 생명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심지어 고소를 한 안나조차도 친언니에 대한 의무와 사랑으로 이야기 내내 고뇌한다.

● **사라 & 브라이언** 사라의 첫째 딸인 케이트가 아프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희생하는 엄마이다. 사라는 안나와 케이트 모두 사랑하지만 케이트가 신장을 기증받지 못하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 속에서 둘째 딸인 안나에게 기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애잔한 캐릭터이다.

이에 반해 아빠인 브라이언은 두 딸 모두 사랑하지만 안나 편에서 안나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케이트가 안나의 신장을 기증받는다 해도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브라이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신장 기증이 첫째 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아빠는 고민한다. 엄마와 딸의 싸움을 안타까워하며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영화 속의 아빠라면, 소설 속 아빠는 안나의 편에서 막내딸을 지지해 주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상황을 대하는 그의 깊은 고뇌를 더욱 여실히 보여준다.

● **안나 & 케이트** 사라와 브라이언의 자녀로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안나는 이 집안의 막내딸이자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고소하는 당돌한 아이이다. 안나는 가족의 평온과 자신의 권리 사이에서 고뇌한다. 안나와 케이트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유일한 자매이자 친구이다. 그녀는 죽음도 두렵지만 가족들에게 힘든 짐을 지게 한 자신의 삶을 미안해하며 그녀 나름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 원작과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영화는 한정된 짧은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 자신의 몸의 권리를 찾겠다는 안나와 아픈 딸을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의 엄마에게 갈등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소설에서는 그들 외의 다른 가족들의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루었고 주변 인물들의 인생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졌다면 소설은 조금 더 솔직하고 현실적이다.

영화는 원작에 충실하긴 했지만 최종 결말은 소설과 다르게 연출된다.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라면 영화가 놓친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소설을 꼭 읽어보기를,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에게서는 책으로 읽었던 내용을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원작의 감동을 느껴보기를 권하고 싶다. 케이트가 내 언니고 안나가 나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반대로 내가 케이트고 내 동생이 안나였다면? 이런 잔인한 현실 앞에서는 우리 역시 영화 속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이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나는 가족의 의미,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 삶과 죽음,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문제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평범한 우리네 일상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비록 픽션(Fiction)이지만 자신의 삶과 언니의 생명을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안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코 행복해 질 수 없을 것 같은 안나의 애처로운 삶에 가슴이 지금까지도 먹먹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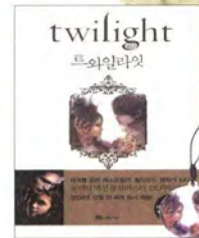


이용자가 선택한 즐거찾는 책 FIVE

대출 기간 2009.7.1 ~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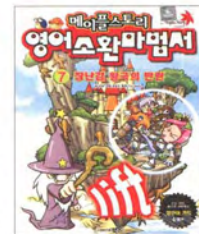
일반

트와일라잇 | 스테프니 메이어
식객. 16, 20 | 허영만
(39세 100억) 젊은 주식부자의 이기는 투자법 | 김정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 공지영
이클립스 | 스테프니 메이어



어린이

(메이플스토리) 영어소환마법서 7 | 강철
100일 동안 100만원 모으기 | 신철
수확대장 3 | 이강숙, 박재성
(빈대 가족의) 천원으로 살아남기 | 이봉기
일등하는 아이들의 좋은 공부습관
꿀피하는 아이들의 나쁜 공부습관 | 김은제



일반

신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트와일라잇 | 스테프니 메이어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이야기 | 헤더 레어 와그너
범인 없는 살인의 밤 | 히가시노 게이고
연을 쫓는 아이 | 칼레드 호세이니



어린이

(빛나라 지식의 별) 스펀지 1 | KBS 스펀지 제작팀
터키에서 보물찾기 | 곰돌이 co.
버락 오바마 | 신주영
바이러스 | 김지애
만화 한자 교과서 1 | 김양수



김포



중앙



평택



일반

위저드 베이커리 | 구병모
식객. 23 : 아버지의 꿀단지 | 허영만
철드는 철분약 | 유키 유
당신이 희망입니다 | 고도원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 이희석



어린이

황금교실 : 전기 | 손정우
넌 어쩔 그렇게 친구가 많아? | 서찬영
스스로 공부해 일등하는 아이 vs
억지로 공부해 꼴찌하는 아이 | 노정미
붕어빵 | 최신호
12세, 맑음 때때로 흐림 | 이성



포천



일반

탱고 | 구혜선
파피용 | 베르나르 베르베르
Pro Teps GVR | 이익훈
참 서툰 사람들 | 박광수
개밥바라기별 | 황석영



어린이

위기탈출 넘버원 3. 위기일발 화산 대폭발! | 에듀코믹
(빛나라 지식의 별) 스펀지 5 | KBS 스펀지 제작팀
(메이플스토리) 영어소환마법서 5. | 강철
퀴즈! 과학상식 : 파충류 양서류 | 안광현
비오는 날 | 유리 슬레비츠

광주

여주



일반

헤일로 이펙트 : 후광효과 | 필 로젠츠바이크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 리처드 브랜슨
악마와 유리구두 | 박수정
선덕여왕 1, 2 | 한소진
옛날에 내가 죽은 집 | 허가시노 게이코



어린이

(빈대 가족의) 천원으로 살아가기 | 이봉기
스스로 공부해 일등하는 아이 vs
억지로 공부해 꼴찌하는 아이 | 노정미
(남극기지 과학자들의) 바다표범 구출기 | 다이앤 맥나йт
꼬마 요괴의 점심 식사 | 아나이스 보즐라드
미술관이 살아있다 1, 2 | 뮤세이온



일반

위저드 베이커리 | 구병모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이클립스 | 스테프니 메이어
신 | 베르나르 베르베르
천년의 금서 | 김진명



어린이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 제로니모 스틸턴
손톱 깨물기 | 고대영
지렁이다 | 차보금
혼나지 않게 해 주세요 | 구스노키 시게노리
게으른 고양이들의 결심 | 프란치스카 비어만

국경을 뛰어넘는 도서관 Libraries without borders

글 • 전미향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사서



안산 다문화 작은도서관 유아실

●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당연한 일원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국제결혼에 의한 제3세계 여성과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로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입수와 활용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 소외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장애를 느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두 나라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주변인'으로 성장해 간다. 언어능력의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지식정보 격차 문제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어 정보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데, 이것이 사회 갈등 유발의 촉매가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

정보의 공공적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인 도서관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민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정체성 유지, 모국 정착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이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등과 같이 이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이민자들의 모국어 책을 비치할 뿐 아니라, 모여 이야기하고 생활정보를 얻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이주민의 작은 고향은 그들과 지역사회 모두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도서관

얼마 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 창원에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도서관 사업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다문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STX그룹이 지원하였다.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은 베트남과 태국 등 7개국 6,000여 권의 도서와 어린이용 동요와 동영상 자료 등을 비치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은 독서생활 외에도 생활 고민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작은도서관에서 이주민들은 우리말을 배우는 학생인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책을 읽고 발표하는 우리말 학습 장소인 동시에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친절한 상담소 역할도 한다. 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처럼 어울리면서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도서 대출과 열람 등 도서관 기능은 물론이고 이주민을 돕는 문화 행사 및 자녀를 위한 놀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 경기지역 다문화 서비스 특화 도서관

도서관명	이용시간	위치
평택 안중도서관 (Pyeongtaek City Anjung Library)	평일 9:00~22:00 토, 일 9:00~18:00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72 ☎ 031-659-6701
안산 관산도서관 (Kwansan Library)	평일 9:00~22:00 토, 일 9:00~18:00	안산시 단원구 도서관길 27 ☎ 031-481-2751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화~일 9:00~18:00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 031-481-2661
이주민과 함께하는 부천 꼬마도서관 (Tiny Library)	화, 목, 금, 일 14:00~18:00 수, 토 14:00~20:00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1 ☎ 032-684-0244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Neutnamu Library)	월, 화, 금, 토 10:00~22:00 수 10:00~18:00 일 13:00~17:00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2-3 ☎ 031-262-3494
용인 작은느티나무도서관 (Yongin Neutnamu Library)	화~금, 일 10:00~18:00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36 보광빌딩 4층 ☎ 031-339-9133

출처 | 경기도 사이버다문화도서관 <http://global.library.kr>



풍요로운 다문화 일구는 도서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이주민이 도서관에 가장 바라는 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직원이 서비스 해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인식 개선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게 사회응용 프로그램이나 모국어 자료 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정서적 반감은 다문화 정책이나 규제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인 포용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속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다문화 관련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으면서도 인종 간 갈등이 적은 캐나다의 미래가 그 어느 나라보다 밝다고 여겨지는 데는, 도서관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은 앞으로 다문화 사회현상을 더 풍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야 하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책을 통해 우리의 이웃 이해하기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오경석, 한울아카데미, 2009.

다문화 정체성, 이론과 현실, 다문화 교육 현황의 문제점과 '우리의', '우리다움'만 강조하는 다문화 주의를 깨뜨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안경식, 학지사, 2008.

열린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자연스러운 교육 방향임을 강조,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



우리 엄마

임희옥, 아이코리아, 2008.

다문화 가정 동화 시리즈 제7권. 아빠가 없어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거나,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내용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동녘, 2008.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현장조사 및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문화, 언어, 종교적 측면에서 교육의 목표, 내용,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더불어 앎로의 방향에 대한 내용



쑤어쓰데이 캄보디아 내 이름은 쑤아

이소영, 한솔수북, 2008.

열린마음 다문화 시리즈 제1권. 혼인 이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을 담은 내용



서양남자 한국여자

윤도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서양남자와 한국여자의 다문화 사랑이야기. 다양한 코드의 연애 이야기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연애관을 들여다보는 내용



▶ 참고 문헌 ▶ 「한국문화정보학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유옥·조미아·김수경, 2009.
「도서관문화」,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의 역할, 신종원, 200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조용원, 2007.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마녀가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빗자루다.
근데 왜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걸까?
그건 바로 빗자루에 '악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녀의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신비한 능력 때문에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었다.
또한 마녀는 질병을 치료해 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한편 빗자루에는 쓰레기는 물론 집 안의
나쁜 것들을 쓸어 내는 힘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마녀와 빗자루는 사악한 것을 제거하는
존재로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 출처 | 천하무적 집학사전 2 / 엔사이클로넷, 좋은생각, 2006.

★추천글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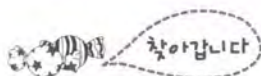
다음 내용은 본 독서정보지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에 실린 추천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 책에는 루시시와 ()라는 쌍둥이 남매가 등장한다. 동생인 루시시는 학교에서 일등만 하는 우등생이자 모범생이고, 오빠인 ()는 만날 꾸중만 듣는 타고난 장난꾸러기에 학교에서 유명한 열등생이다.

- ① 카를 ② 피피루 ③ 조쉬 ④ 클라크

★응모방법

www.happylib.or.kr ▶ 행복한 퀴즈 ▶ 책에 관한 퀴즈 클릭!



행복한 책읽기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프로그램 | 달려라 라디오스쿨 (경기방송 FM 99.9MHZ)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다시듣기 | www.happylib.or.kr ▶ 경기방송과 행복한 책읽기 클릭!

지난 호 독서정보지는 e-book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appylib.or.kr ▶ 행복한 퀴즈 ▶ 독서정보지 퀴즈 클릭!



제9호 (여름호) 설문조사 당첨자

광주시 경안동 정창순 | 수원시 장안구 최지훈 | 평택시 장당동 이하숙

김포시 감정동 탁민홍 | 여주군 여주읍 이해원

